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24.94	↑ 코스닥	840.81
	(+30.93)		(+4.71)
↓ 금리 (연율)	3.128	↓ 환율 (원/달러)	1380.40
	(-0.032)		(-10.20)

다시 기업가정신
구인회
LG그룹 창업회장
03



m-커버스토리

정제마진 하락에 수익성 악화 脫정유 중심 친환경사업 확대

위기의 정유업계

정제마진 여전히 약세
업계, 정유사업 벗어나
SAF·액침냉각유 등
친환경 새 먹거리 모색

정유업계가 정제마진 하락 등 요인으로 수익성 악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유사들은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유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4면〉

4일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정유사 정제마진이 4주 연속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강세를 보여야 할 시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평균 복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전통적인 정유 공장'과 '첨단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미래지향적인 정유소' 이미지.

합정제마진은 전 주 대비 배럴 당 0.5달러 개선된 8.5달러로 평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5.4달러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올랐고 그사이 상승 폭은 3.1달러에 달했다. 다만 연중 가장 높았던 지난 2월 첫째 주의 15.1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휘발유 마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정제마진의 하락 요인으로 아시아의 유럽향 경유 수출

이 감소해 중간유분 재구가 지난 2019~2023년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증가한 점이 꼽힌다. 중국·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공급이 확대되고 쿠웨이트, 나이지리아의 신규 정제설비가 가동을 시작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정유산업은 원유정제를 통해 연료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와 제품 수출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에 민감하다. 지

난해 기준 국내 정유산업의 정제능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원료인 원유의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다. 수출비중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정제공정 및 고도화공정 등을 통해 각종 정유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 하더라도 원유 가격 상승분만큼 이익을 얻지는 못하는 구조다.

〈4면에 계속〉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가 오는 7월 17일(수) 오후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에 금융·자산시장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없이 최고가를 경신중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커진 덩치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의 미래 삶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을 궁리해야 할 때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당면한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정재훈 KB부동산 박사,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 등 자산관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 합니다.

- 행사명 :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 주 제 :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일 시 : 7월17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30~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등록 : '2024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www.metroseoul.co.kr),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금융위장 김병환, 환경장관 김완섭, 방통위장 이진숙 “새 수출 동력 ‘전력기자재’ 올해 2.7조 무역금융 투입”

尹, 총선 후 첫 장관급 인사
차관급 정무직 인선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제22대 총선 후 장관급 인사는 처음으로, 이를 시작으로 부처 수장들이 차례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환 1차관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경제 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고,



김완섭(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각각 지명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기재부 1차관에 작년 8월에 임명됐고,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완섭 전 2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

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사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중군 기자로 활약하는 등 현장 경험과 경영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3명의 장관급 인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은 정무직 인선으로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통령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정부가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2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 수출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전력기자재 업계와 '제8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 효성 우태희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서진하이텍 유은경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한전 김동철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무역보협공사 장영진 사장 등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기자재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가전,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이원석 검찰총장 “상대가 저급하게 나와도 외압 굴복 말아야” /사진 뉴시스
- ▲ 한동훈 “내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은 공정한 결과 담보할 수 있다”

- ▲ 조국 “빠르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현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
- ▲ 나경원 “나치 같은 민주당, 이재명 범죄 가리려 숫자로 밀어붙여”



- ▲ 민주당 “국힘 필리버스터, 진상규명 막으려는 궤변의 궂판” /사진 뉴시스
- ▲ 서국민의힘 “검사 탄핵” 민주당, 입법 폭주병·탄핵남발병 중환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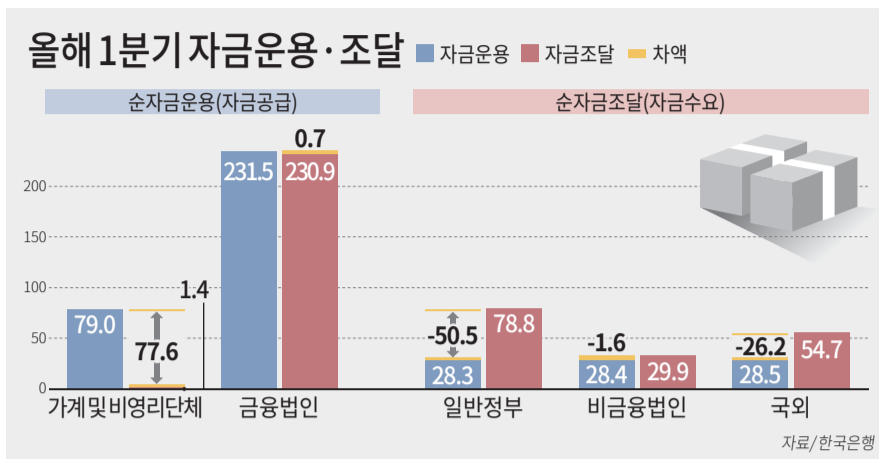
부동산 등 실물투자 줄어... 가계 여윗돈 47.8조 늘었다

한은, 1분기 자금순환

가계·비영리단체 순자금운용 77.6조
가계 자금조달액 1.4조, 크게 줄어
주담대 증감액 15.2조→12.4조로
기업 여유자금 -6.9조로 줄어들어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가계의 여유자금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47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줄어든 영향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유자금은 주로 예금에 몰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은 77조 6000억원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 47조 8000억원 증가했다. 순자금운용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을 말한다. 즉, 가계의 여유자금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정진우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통상 1분기는 상여금이 들어와 여유자금이 증가하지만, 올해 1분 가계의 여유자금(순자금운용규모)은 지난해 1분기(85조 6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가계의 여유자금 중 자금조달 부분은 실물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분기에는 분양물

량이 많지 않아 실물투자에 흘러 나간 자금(금융기관 대출금)이 줄면서 여유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가계 자금조달액은 1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9조 2000억원)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기간 15조 2000억원→12조 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가계의 자금운용액은 79조원으로 전분기(39조원)와 비교해 2배가량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58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18조 4000억원)와 비교해 40조 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권은 7조 3000억원→12조 4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13조 1000억원→2조 9000억원으로 늘었다.

정 팀장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이들이 늘었다”며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채권에 투자하거나 위험 대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주식으로 투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기업(비금융법인)의 여유자금은 -1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6조 9000억원)와 비교해 축소됐다.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29조 9000억원으로 전분기(31조 3000억원)와 비교해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회사채 발행여건이 개선되면서 채권이 순발행으로 전환됐지만 상거래 신용이 줄면서 조달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대출, 채권, 주식 발행액은 각각 8조 3000억원, 10조 5000

억원, 11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의 자금운용액은 28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24조 4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었다. 상거래 신용이 줄었지만,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하고 채권도 순취득으로 전환됐다.

일반정부의 여유자금은 -50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8조 6000억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금융기관 예치금, 정부유자 등이 증가하면서 자금운용액은 28조 3000억원을 늘었지만 자금조달액이 국채발행, 금융기관 차입이 크게 늘면서 78조 8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편 가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3배로 전분기(2.25배)보다 상승했다. 금융자산이 5326조 2000억원으로 122조 1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가 2317조 5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영향이다. 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1%를 기록해 전분기(93.6%)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인프라·원전 등 해외수주 위해 5년간 85조 투입

최상목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 등 금융수단 다각화 적극 추진할 것”

정부가 인프라·원전·방산 부문 해외수주를 위해 올해 15조 원 투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85조 원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파이낸스 패키지 개발 등 금융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 확대 등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고 말했다.

‘K-파이낸스 패키지’란 이 같은 수출입은행 금융과 EDCF, 공급망 기금을 패키지로 묶어 중점 협력국과의 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형 개발사업 협력, 공급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은의 기능을 강화해 ‘수출입’을 넘어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통상협력 추진 전략과 관련해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보다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

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남아시아 3국 국민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한 아프리카·중남아시아 국가와 관련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사업, 개발협력 등 주요 분야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지붕은 별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을 인용해,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1면 ‘새 수출 동력, 전력...’서 계속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세계 최초로 구현한 1MW급 상용용 건물 직류(DC) 배전시스템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올해 수출·수주 목표 182억 달러 달성하면 韓 수출품목 10위권”

올해 수출 목표인 수출액 162억 달러, 수주액 20조원을 달성할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0위권에 들어간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력 기자재 시장 슈퍼사이클이 열렸다”며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수출 목표를 162억 달러로 설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전력 공기업과 수출지원 공기업은 ‘K-그리드 수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력기자재 산업을 수출산업화 선도 모델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프로그램을 마련해 2조 7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방안’을 수립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 수출협업체 결성, 연구개발 확대 등 종합 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교육부, 3년간 의대교수 1000명 증원 추진

의대생들 집단유급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방안’ 마련키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수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향후 3년간 1000여명의 전임 교원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 대학 의대는 이르면 내달부터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

정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의 대학별 자료 확인, 정원 배정 이후 교육여건 개선 수요 조사 등 세 차례에 걸쳐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상국립대·경북대·충북대 등 일부 국립대 의대는 기존보다 2배~4배가량 증원되면서, 정부가 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지원 TF 관계자는 “정원 증원

규모가 큰 국립대 의대의 충분한 교수진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의 교육여건, 지역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별 정원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의 교수 채용 절차는 내달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5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15주씩 총 두 학기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며 ‘유급’과 ‘개설 과목’ 기준을 마련하던 학기제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lhj@



연암 구인회 회장의 회갑연에서 아들, 사위들과 함께 찍은 사진.

고객가치 경영 선구자... '인화단결' 바탕 기술입국

〈人和團結〉

〈技術立國〉



구인회
LG그룹 창업회장

“남이 안 하는 일 가운데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어디까지나 국민경제에 유익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차체 빼고 다 만든다는 LG가 탄생하기까지는 '인화단결'을 외친 구인회 창업회장의 정신에서 비롯됐다. 구인회 창업회장은 1940년대 당시 수차례 전쟁을 거치며 불모지나 다름 없던 우리나라에 '기술입국(技術立國)'을 시키며 피폐해진 국민들의 생활상을 바꾸었다.

구 창업회장, 기업가정신 '인화' 플라스틱 연구개발... 금성사 설립 TV 등 전자제품 국내최초 개발

LG전자의 매출은 지난해 84조 2278억원으로 3년 새 20조원 넘게 늘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조 1950억원에서 3조 5491억원으로 개선됐다. 주력 사업인 특히 전자사업은 연 매출 10조원을 돌파하며 LG전자는 4대 그룹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이같은 전자 산업강국이 탄생하기까지는 구인회 창업회장의 '개척정신'과 '인화

정신'이 밑거름이 됐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인화(人和)'를 우선시했다.

이는 구 창업회장이 창업 당시 친인척간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는 정신에서 비롯됐다. 특히 LG는 다른 그룹과 달리 창립 이후 몇 십년 간 잡음이 없었던 회사로 유명한데, 이는 창업자의 경영이념인 '인화단결'을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 유교집안 청년의 끝없는 도전

구 창업회장의 경영이념은 일제강점기 시절 원대한 꿈을 품은 그의 청년 시절로부터 구축됐다. 구 창업회장은 끝없는 도전으로 포목상, 청과·어물전, 운수업 등 숱한 시행착오를 겪은 뒤 47년 럭키크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인생을 걸었다.

1930년 대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플라스틱 칫솔 하나 만들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하지만 구 창업회장은 집안을 설득해 옷감을 떼다 파는 포목점을 개업하며 전자 산업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 구 창업회장 집안은 조부가 조선시대 높은 벼슬에 올랐을 만큼 뿌리 깊은 유교 집안으로, 상업은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구 창업회장은 1931년에 전주에서 첫째 동생 구철회와 함께 구인회상점을 설립해 포목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둘째 구정회사는 동경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평안남도청 토목과에 잠시 근무하다 형의 사업을 도왔다.

이후 구 창업회장은 광복 직후인 1947년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화학공장 건물 일부

를 사들여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를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크림을 만들었다.

락희화학경영도 대부분 가족이나 사돈(하씨)들이 도맡아 했다. 47년 락희화학 설립 당시 생산담당이었던 김준환씨를 제외하면 구 회장, 둘째동생 구정회, 영업담당 허준구(첫째 동생 철회씨 사위)씨 등으로 사실상 '가족기업'이었다. 이에 구 창업회장은 ▲인화단결 ▲개척정신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했으며 현재도 그의 정신이 이어져오고 있다.

인화정신을 바탕으로 구 창업회장은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국내 최초로 사출성형기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사업을 시작했다. 전쟁 등 여수선한 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대부분의 락희화학 임원들의 만류에도 구인회 창업회장은 플라스틱 연구 개발을 시작한 것,

구 창업 회장은 “세상살이란 눈을 크게 뜨고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살아야 하는 법이다. 눈 앞의 이익만 살피거나, 어려운 일을 피하고 요령 부리며 산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또 한 번 도전해 보자”며 임직원들을 다독이며 인화와 동시에 '개척정신'을 발휘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산업시설의 45% 이상이 파괴된 가운데서도 편리한 플라스틱용품을 공급받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구 창업회장은 이때 쌓은 제조 기술을 발판으로 1959년 주식회사 금성사(지금의 LG)를 세우며 재벌을 형성했다.

이후 구 창업회장은 라디오, TV 등 전자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며 산업 불모지에 '기술입국(技術立國)'을 성공했다. 이에다. 이에 국내 생산과 고용을 끌어올리며 국민 생활 수준을 크게 개선시킨다.

◆ “잘 만드는 것도 애국 하는 길”

구 창업회장의 인화정신과 개척정신은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게 된다. 구 창업회장의 경영철학 중 하나인 '연구개발'은 그의 개척정신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생산업자가 국민의 생활용품을 차질 없이 만들어 대는 일도 애국하는 길이다. 군인들이 일선에서 싸우듯이 우리도 새로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기업 최초 공익재단 설립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이에 구 창업회장은 나라의 문화 발전에도 힘쓴다. 그는 생전 가족들에게 “돈을 벌기만 했는데 사회에 기여하려면 무슨 방면에 쓰면 좋을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후 LG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문화재단의 설립 계획서와 함께 허가원을 제출했고 당시 정부는 크게 환영하면서 문화재단 설립을 승인했다고 한다. 이에 탄생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 최초의 공익 재단인 연암문화재단이다.

구 창업회장의 개척정신을 이어 LG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LG전자는 전 세계 가정을 LG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근 1000여 개 브랜드의 5만여 종, 수십억 대의 전자기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 애틜움(Athom)을 인수했다. 특히 LG의 AI연구원은 지난 2021년 초거대 AI '엑사원'을 선보였다. 지난해 멀티모달(언어와 이미지 양방향 생성) 모델로 진화한 '엑사원 2.0'을 공개했다.

LG생명과학 본부는 지난해 연 매출 1조원을 넘겼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신약(신장암 치료제·포티브다)을 보유한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해 미국 시장의 신약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LG화학은 최근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고 있다. 신약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2020년 1740억원에서 지난해 약 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구인회 창업회장이 금성사 부산 연산 부지에서 생산된 라디오를 살펴보고 있다.

/LG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친환경 '항공유·액침냉각유'로 안정적 수익원 확보 도전



챗GPT가 생성한 정유업계의 지속 가능한 기술로의 전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정유업계, 비정유 경쟁 가속

정유업계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신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본원 사업인 정유에서 벗어나 '탈정유' 방향으로 트는 분위기다.

이러한 정유사들의 행보는 유가·정제마진 하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안정한 수익성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정유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새 먹거리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서 원유 가격을 뺀 값으로 정유업계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친환경 'SAF' 선점 경쟁 불타올라... 정부도 힘 합쳐야

최근 주요 국가들의 지속가능 항공유(SAF)에 대한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정유사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SAF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유 의존도 낮춰 불안정한 구조 탈피 에쓰오일, 韓 첫 SAF 국제 인증 획득 HD현대오일뱅크, 韓 첫 SAF 수출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 기름 등을 이용해 만들어지며 기존 연료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EU를 필두로 전 세계적인 SAF 사용 의무도 강화되고 있다. EU는 SAF혼합 비율을 2025년 2%에서 2050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공사에 제트유 가격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국과 일본도 이에 동참해 2030년 SAF 사용 10%를 목표로 하며 더 이상 항공업계 내에서 SAF사용은 선택사항이 아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도 SAF 시장 선점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에쓰오일은 국내 정유사 최초로 SAF생산 공식 인증 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ISCC CORSIA) 인증을 획득해 지난 1월부터 바이오 원료를 정제 설비서 처리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에쓰오일의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온실가스를 약 90% 저감할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SAF 수출에 나선다. 회사가 생산한 SAF는 일본 트레이딩 회사 마루베니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ANA항공에서 사

용된다. 일본이 SAF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출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SAF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정유사들도 SAF 인증 및 개발에 속도를 내는 건 마찬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말 SAF 생산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6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SAF의 재료가 되는 폐식용유 등 원료 확보를 위해 중국과 한국, 미국 업체들에 자본 투자를 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해부터 대한항공과 SAF 시범 운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인 핀란드 네스테로부터 SAF를 공급받아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 화물기를 통해 시범 운항을 진행한 바 있다. 원료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바이오 정제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SAF 상용화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및 부처 간 윈윈 톱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기반이 갖춰져야만 SAF 분야에서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 등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과 함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면 국내 업계도 SAF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뜨거운 데이터센터 식혀라... 액침냉각에 집중

정유업계는 액침냉각유 경쟁에도 한창이다. 인공지능(AI) 확대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 처리로 뜨거워진 데이터센터를 식히기 위해 윤활유 일종의 액침냉각유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액침냉각은 서버나 배터리 등 열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겨 냉각하는 기술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액침냉각 시장은 지난 2022년 2억4400만달러(한화 약 3300억원)에서 2030년 17억1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규모는 연평균 24.2%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기 냉각을 이용하는 공랭식과 비교해 소모 에너지가 낮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공랭식은 데이터센터 총사용 전력의 40%를 사용하는 데 반해 액침냉각은 6%만 사용한다. 또한

서버 하드웨어 고장의 주된 원인인 발열과 먼지, 수분 등을 제거해 기기의 불량 가능성을 낮추고 수명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액침냉각유 시장에 먼저 진출한 업체는 SK엔무브와 GS칼텍스가 있다. 국내 선두주자인 SK 엔무브는 지난 2022년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인 GRC에 2500만달러 규모 지분을 투자해 관련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23년에는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액침 냉각 기술을 실제 시험해 기술을 검증받았다.

액침냉각시장, 2030년 17억弗 전망 SK엔무브, GRC에 2500만弗 투자 GS칼텍스, 액침냉각유 브랜드 출시

GS칼텍스는 지난 2023년 11월 액침냉각유 브랜드 '익스 이머전 플루이드 S'를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들과 실증평가를 통해 제품 성능을 검증했다.

에쓰오일 또한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액침냉각유 사업 진출 공식화를 선언했다. 에쓰오일 측은 "당사의 윤활유 사업 규모 측면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고려해 액침냉각유 시장에서 적극적인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밝

혔다. 이어 "개별 센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제품 라인업을 구비했다"며 "금년 내 실증평가를 통해 서버의 안정적인 구동 및 구동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 등을 검증할 예정"이라 언급했다.

정유사들은 윤활유와 윤활기유 시장의 강자다. 윤활유는 윤활기유에 첨가제를 더해 생산한다. 액침냉각유 역시 윤활유의 한 종류다. 윤활기유 시장은 국내 업체를 포함해 대규모 정제설비와 원유도입 능력을 모두 갖춘 소수 업체가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한국 정유업계가 액침냉각유 시장 선점을 자신하는 이유다.

윤활유 사업부는 정유사 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출 비중은 작지만 영업이익률은 전 사업부에서 최고 수준이다. 정유 4사(HD현대오일뱅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의 윤활유 부문 영업이익률은 20.4%로 정유 부문 평균 영업이익률인 1.9%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윤활유 사업 부문에서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은 각각 9978억원, 8157억원을 영업이익을 거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아직 액침냉각유 사업은 초기 단계"라며 "에너지 효율과 절감 등 여러 성능을 점검하며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유가 상승해도 이익 얻기 어려운 구조"

>> 1면 '위기의 정유업계'서 계속

원유 가격 상승분은 원유 수입 비용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슈퍼 앤저로 인한 국내 기업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유업계는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아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지난 1일 기준 달러당 161.72엔까지 올랐다.

지난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엔·유로 환율 또한 같은 날 유로

당 173.68엔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는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원유 가격 상승분만큼 이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라며 "유가가 오르거나 정제마진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는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다음 분기에는 그만큼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황 악화에 국내 정유업계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액침냉각유 등 친환경 중심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있다. 최근 산업계에서 탄소 저감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탈정유 중심의 신사업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차현정 기자

나도 모르는 내 남편의 취향,
지니 TV는 맞출 수 있을까?



주연 **곽동연 · 이주빈**



GENIE TV

AI가 시청 이력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

kt, 당신과 _ 미래 사이에

정치평론가 “野 ‘검사탄핵’ 명분 부족·국민 납득 어려워”

발의 전 수사 의뢰 등 절차 있어야
효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국한
역풍 가능성... 여론 나빠질 수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탄핵이 명분이 부족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 사유로,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점을 들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또,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들었고, 엄희준 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거나 관련한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탄핵하는 것은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하는 등 여의도와 서초동의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 절차에 따른 탄핵소추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 평론가는 “의혹이 있는 검사를 탄핵하려면 발의 전 단계에서 현행법 위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본다든지, 검찰에 조치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울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검사들의 과거 행위에 대한 문제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정상이다. 뒷처리 사법부가 있다”고 반문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함께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탄핵을 추진해 검사의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검사 탄핵 추진의 효과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민하 평론가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사들을 혼내주는 모양새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만족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스펙트럼의 유권자층에선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이다.

다만, 김 평론가는 “윤석열 정권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지지층을 확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시점에서 지지층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보수 강경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슈에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채진원 교수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역풍이 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인천·충청·TK로 뻗어나가는 與 당권 레이스

한동훈·원희룡, 인천시청 찾아
22대 총선 참패 책임 공방 벌여
나경원 “후 이겨본 당 대표 필요”
윤상현 “권력싸움에 당 분열 우려”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4인의 당 대표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광역시를 찾았고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각각 대전과 TK(대구·경북)를 찾아 당심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집중했다.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저마다 만난 뒤 기자들에게 당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21~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것을 두고 평소에도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열어 지역 밀착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이 자신이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면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지금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총선에서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윤상현 후보도 인천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발언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의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면서 “저는 당내 선거에서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도전장을 던진 바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지역 발전 구상을 펼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때 인천 발전을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

도)-B·D, 인천에서 부천·하남까지 직통,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아직 다 못했다”면서 “유 시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요 국정수행도 같이 해왔던 동료이자 협력자이기 때문에 인천 소속(당협)위원장으로서 시장님 표정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제가 전력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저라면 비대위원 구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용기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로 구성했을 것”이라며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총선 지휘 경험 없는 분에게 공천 전략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충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잇따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나 의원은 이장우 시장을 만나 ‘충청소외론’에 대해 “역대 대선에서 충청에서 이겨야 그 정당성이 됐다”며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고 영남과 호남 쪽에서도 가운데 있는 충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서 원희룡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나 의원은 “원 전

장관계서, 본인이 지난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면 총선 참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작 본인의 선거 결과는, 전혀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무려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원 후보가 총선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젓갈씨’를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보궐선거 성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저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탈환했다. 선거는 전략과 공약으로 치르는 것이다. 선거는 민심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이기는 방법을 아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재명을 이겨본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틀 연속 TK를 찾은 윤상현 의원은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싸움”이라며 “누가 이기든 당이 분열될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한 당의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 필리버스터에도 순직해병 특검법안 국회 통과

與 항의에 종결 표결 절차 진행

국회가 4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 상정에 항의하며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실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야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

리했다.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필리버스터 시작에 맞춰 신청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후 3시54분께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광 의원에게 발언 마무리를 요

청했다. 광규택 의원이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가자 우 의장은 오후 4시10분께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려고 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우 의장의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토론 종결 시도

에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 의원 발언 도중에 안건을 처리하려는 데 항의하면서 토론 기회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이어가자, 우 의장은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자, 국민의힘에서 지명된 감표 위원들은 감표 위원석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시 감표

위원을 지명해 표결 절차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순직해병 사건이 공수처 등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추후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 주도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해외여행족 공략 특화상품 통했나 현대카드 연회비 수익 '업계 첫 1위'

현대카드 1분기 연회비 수익 792억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 '1위'
신규 회원도 13.3만명 늘어 최고
아멕스카드 프리미엄 전략 주효

올해 신규 회원을 대거 유치한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이 이례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해외여행족을 공략해 출시한 상품이 소비자들의 '리브콜'을 받으면서다.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이 업계 선두를 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792억원이다. 지난해 동기(665억5700만원) 대비 19% 증가했다. 그간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업계 3~4위를 차지했지만 '업계 1위' 타이틀을 확보했다. 1분기 전업 카드사 7곳의(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평균 46억2800만원 상승했으며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 증가액은 126억4500만원이다.

공격적인 영업이 수익 확대에 이어

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분기 현대카드가 확보한 신규 회원은 13만3000명이다. 카드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해외여행족을 꾸준히 공략했고 올 1분기에도 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해외여행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의 개인신용카드 해외송인 잔액은 7906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연회비 상승을 견인한 상품은 '현대아멕스카드에디션2'와 '대한항공카드 시리즈'다. 아멕스카드는 지난 2월 개편을 통해 새롭게 공개했다. ▲더 플래티넘 ▲더 골드 ▲더 그린 등 3종으로 구성했으며 연회비는 1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다. 전 세계 호텔 1500곳에서 100달러 상당 바우처 및 조식 무료 이용권, 퇴실 시간 연기 서비스 등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

특히 아멕스카드의 프리미엄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설명이다. 아멕스카드는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사용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된 탓에 소비

자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명사로도 꼽힌다. 일반 신용카드 대비 높은 연회비로 출시했지만 해외여행을 떠날 여력이 있는 소비자를 공략한 만큼 여행 업종 적립 혜택과 호텔, 라운지 혜택을 강화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소비 여력이 높은 해외여행객을 목표로 아멕스카드를 출시한 전략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유입한 신규 회원의 충성도를 높이는 '특인효과' 극대화다. 카드업계가 여행 업종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각변동 또한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올해는 업계 상위권 카드사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해외여행 특화 카드를 출시하면서 여행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은 소비여력이 있는 '우량차주'인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소비자층이다"라며 "건전성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청약 마감

1278세대, 평균 경쟁률 8.44대 1
전용 84㎡A, 최고 경쟁률 173대 1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전용면적 84㎡A 타입(기타경기) 최고 173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지난 2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총 1만105건이 접수돼 1순위 전체 7.9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5개 타입 중 2개 타입(84㎡A·84㎡B)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고, 나머지 3개 타입도 ▲99㎡A 1.43대 1 ▲99㎡B 1.59대 1 ▲170㎡P 3.67대 1을 기록하며 세대수 이상의 1순위 청약 접수율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난 2일과 3일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1278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792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8.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 세대 순위 내 청약을 마무리했다. 특히, 전용면적 84㎡A 타입(기타경기)은 최고 경쟁률인 173대 1을 기록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면적 84·99·170㎡ 총 1694세대 아파트 및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영관계자는 "일산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독보적인 입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증권사 CMA 수익률, 은행 파킹보다 매력적

증권사 CMA, 최고 연3.6% 수익률
우대금리 요건없고 예치금 구간 넓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의 수익률이 은행권 파킹통장(고금리 수시입출금통장)을 앞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예금 금리 인하 추이와 증권 시장 불안정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늘어가는 가운데 CMA가 주요한 자금 운용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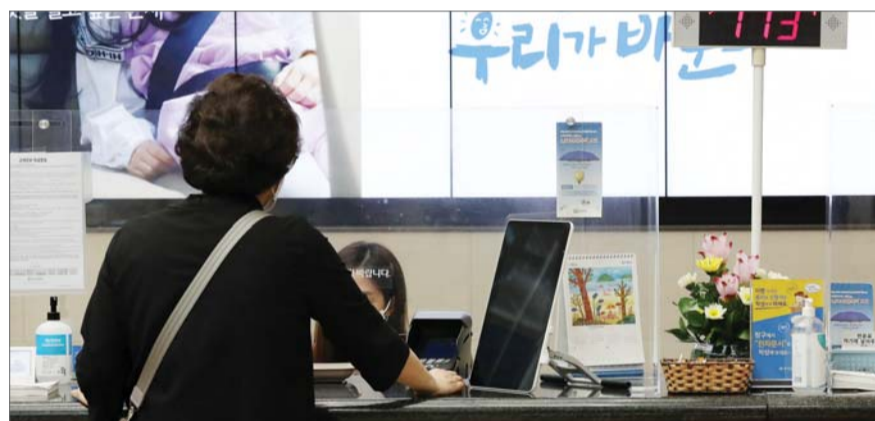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종합금융회사의 자산관리계좌(CMA) 수익률이 최고 연 3~3.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이 판매하는 파킹통장(고금리 수시입출금통장)의 금리인 연 2~3.5%보다 높은 수준이다.

CMA는 증권사·종합금융회사가 내놓은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신용등급이 높은 공공채·회사채·어음·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통상 CMA는 연 3%대 중반의 수익률을 제공해 최고 연 4%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이 없고, 파킹통장보다 최고금리를 제공하는 예치금 구간이 넓다.

은행권 수신 금리 인하 추이에 따라 파킹통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CMA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파킹통장의 금리를 앞지르게 된 것.

금융권 관계자는 "파킹통장을 포함한 수신 상품 금리는 통상 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금융채의 금리를 따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

라 움직인다"며 "최근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파킹통장 금리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채(AAA, 1년물 기준) 금리는 연 3.48%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록한 3.71%에서 0.23%포인트(p) 하락했다.

은행권 수신 금리 하락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 규모는 총 638조8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록한 616조7450억원 대비 22조867억원(3.6%)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대신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 수시입출금상품이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만큼 대기성 자금으로 취급된다.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면서, CMA로 불리는 자금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CMA 계좌는 3942만6000개에 달했다. 지난해 말 계좌 수인 3803만

5000개와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약 140만개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종합사가 판매 중인 CMA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최고 연 3.6%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우리종합금융의 '우리WON CMA Note'다.

'우리WON CMA Note'는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는 증금형 상품으로 별도의 조건 없이 1000만원 이하의 예치금액에는 연 3.6% 수익률을, 1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연 3.2%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다만 변동 금리를 채택하고 있어, 향후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의 'CMA-RP네이버통장'이 최고 연 3.55%의 수익률을 제공해 뒤를 이었다.

'CMA-RP 네이버통장' 별도의 조건 없이 1000만원 이하의 예치금액에 연 3.55% 수익률을, 1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연 3%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RP(환매조건부채권)형인 만큼 약정기간 동안 고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법인세·소득세 앱으로 납부하세요"

케이뱅크 '공과금 내기' 서비스
지방세 이어 국세 납부도 추가

앞으로는 케이뱅크 앱에서 각종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지방세에 이어 국세 납부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는 2017년 지방세와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낼 수 있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기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국세 납부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전체' 탭을 선택한 뒤 '편의' 중 '공과금 내기'에 들어가면 된다.

'나의 공과금'에서 ▲자주 쓰는 지로 번호 관리 ▲납부내역 조회·취소 ▲자동납부 조회·등록·해지 기능을 이용하면 한눈에 공과금 관리를 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에 국고납부 업무를 추가해 케이뱅크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을 확대했다"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속 케이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인증서 가입자 수 1500만명 돌파

KB국민은행은 KB국민인증서의 가입자 수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 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창구 방문 없이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청약홈 ▲한국전력공사 등 700여개 공공·민간기관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잡한 암호 없이 패턴·지문·페이스 ID 중 선택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하며 6자리 간편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빠르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편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과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 해킹 및 탈취로

부터 안전하도록 휴대폰 앱의 보안 영역에 인증서를 저장하는 방식을 지원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업무를 처리 시 모바일 OTP 등 추가인증 절차를 마련해 보안을 강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30세대 및 여성 고객을 위한 민간 플랫폼과의 제휴 확대 ▲디지털 인증확산센터 등 정부의 민간 인증서 이용 촉진 사업 참여 ▲고객에게 유용한 공익정보 전자문서 발송 등 서비스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인증서를 통해 고객의 일상에 더 큰 편의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와 융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고려아연-영풍, 황산취급 소송전... 경영권 갈등 격화되나

기존 계약 등 법정공방 확대 예상

고려아연 “일방적으로 소송 제기”
영풍 “갱신 거절, 불공정거래행위”

세계 최대 비철금속 업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과 고려아연의 싸움이 새로운 소송전에 돌입했다.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 경쟁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두 기업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동지’에서 ‘적’으로 갈라섰다. 주총에서 영풍은 고려아연 배당안과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이후 고려아연이 단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과 동업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분사 이전과 함께 그동안 협력관계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원료 공동구매와 영업, 위험물질 취급대행 등 제련사업 관련 협력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여기에 두 기업 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소 생산 제품의 수출과 판매를 맡아온 서린상사 경영권까지 확보했다. 특히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두고 영풍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고려아연의 법정 공방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장기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일

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계약 갱신 거절을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판단했다. 영풍은 2003년부터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물질인 황산의 보관과 관리를 고려아연 측에 맡겨 왔다.

영풍은 “황산은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해야 하는데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

게 되면 영풍은 황산을 수출할 수 없어 아연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ESG 이슈, 시설 노후화, 황산 물량 증가를 들고 있으나 계약을 즉시 중단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영풍은 아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국내 아연 공급망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계약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사전에 이미 시설 노후화 등으로 폐쇄 필요성을 지난 4월 통보했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했는데, 영풍 측에서 과도하게 7년 이상 유예기간을 제시하며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외부 기관 검사 결과 황산탱크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

와 법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비현실적 요구만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협상 대신 일방적인 소송을 반복하는 영풍에 유감을 표했다.

계약 종료일인 지난 1일 이후에도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영풍 측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영풍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넘겨 받았다”며 “황산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아연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놓는데 상장기업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HBM개발팀 신설

전영현 부회장 체제 조직개편
차세대 HBM4 기술 개발 착수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이날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이 팀을 통해 HBM3(4세대) 및 HBM3E(5세대)를 비롯해 차세대 HBM4(6세대)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당초 삼성전자는 메모리사업부 안에 HBM 개발 조직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 전담 조직을 꾸려 차세대 HBM 연구개발(R&D)에 집중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패키징(AVP) 개발팀 및 설비기술연구소도 재편한다.

기존 AVP 사업부를 재편한 AVP 개발팀이 전영현 DS부부장(부회장) 직속으로 전환됐다. 미래 핵심 기술인 3D 패키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다. 패키징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중요한 핵심 공정이다.

설비기술연구소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반도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양산 설비에 대한 기술 지원에도 뛰어든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조직 재편은 현재 HBM과 파운드리 분야에서 각각 SK하이닉스와 TSMC에 밀리고 있는 만큼 선두 탈환 목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전영현 부회장(사진)이 DS부문을 이끌게 된 지 한달 만에 이뤄졌다.

앞서 전 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며 사업 방식과 조직에 대한 쇄신을 시사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두산테스나, ‘평택 제2공장’ 짓는다

대규모 투자로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가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선다.

두산테스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평택 제2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고 4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시스템 반도체의 신제품 관련 테스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두산테스나는 지난해 기존 공장 3개(평택, 서안성, 안성)를 모두 합한 것보다 큰 면적의 클린룸을 설치할 수 있는 4만8000㎡(1만4500평) 규모 부지를 확보한 바 있다.

두산테스나는 우선 2200억원을 투자해 1만5870㎡(4800평) 규모의 공장 구축 및 클린룸 설치를 진행하며, 연내 착공해 2027년 상반기 내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증설 필요시점에 맞춰 단계별로 증축함으로써 투자를 최적화하



두산테스나 평택 제2공장 조감도 이미지.

기로 했다.

평택제2공장에서는 주로 이미지센서 반도체(CIS), 고성능 시스템온칩(SoC) 등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공정 작업이 이뤄진다. 장비 배치 및 직원·차량 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클린룸 내 외부 이물질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또 일반 사무실보다 8배, 병원 수술실보다 2배 높은 수준의 제진(진동에 견딤) 기술이 적용된다.

두산테스나는 자동 적재장비, 자율 이동로봇 등 중앙 관제시스템과 태양광 설비 등을 도입해 평택 제2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스마트플렉스 AH51+’ 출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대형 카고(화물)트럭, 트랙터, 덤프트럭을 위한 전용 타이어 ‘스마트플렉스 AH51+’를 국내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스마트플렉스 AH51+는 기존 ‘스마트플렉스 AH51’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한국타이어는 소개했다.

타이어 주행 방향과 동일한 각도로 약 400m의 스파이럴코일(고강도 와이어)을 감싼 5벨트 구조를 적용해 벨트 내구성을 대폭 향상 시켰다. 또 강화된 케이싱으로 트레드 벗겨짐(버스트) 사고 위험을 줄이고, 트레드 변형 최소화와 접지 형상 개선을 통해 마일리지 성능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퓨처엠 캐나다 현지인력 직무교육

포스코퓨처엠이 캐나다 양극재 공장 가동에 대비해 현지 핵심 인력을 한국으로 불러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글로벌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섰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6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캐나다 현지 합작법인인 ‘얼티엄캡’ 현지 채용 직원 중 핵심 인력 21명을 대상으로 포항 인재창조원, 양극재 공장 등에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2022년 5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으로 캐나다 퀘벡주에 설립해 준공을 앞둔 연산 3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현장 주임급 직원들로 3주간 포항 양극재 공장에서 생산, 정비, 품질 관련 조업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결과, 양극재 공장 시운전과 양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HD한국조선해양,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수주

유럽 선사 3286억 계약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사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한화로 3286억 원으로, 이번에 수주한 VLAC 2척은 HD현대사호에서 건조해 2028년 9월까지 인도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 건을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총 118척(해양 1

기 포함), 125억9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연간 수주 목표인 135억 달러의 93.2%를 잠정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8척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52척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 운반선 38척 ▲에탄운반선 1척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6척 ▲탱커 3척 ▲자동차운반선(PCTC) 2척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1척 ▲해양설비 1기 ▲특수선 4척 등이다.

/양성운 기자

SK그룹-EDC, 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 (캐나다수출개발공사)

중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 MOU

SK그룹이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Export Development Canada)와 손잡고 청정기술,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SK는 EDC와 이 같은 내용의 ‘양사간 중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EDC는 1994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다. 수출보험과 보증, 투자

등을 통해 캐나다 자국의 수출을 지원하며, 친환경·디지털 등 정책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맡고 있다.

SK는 이번 업무협약이 기업과 캐나다 공적 금융기관이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는 이번 EDC와의 협력을 계기로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ESG 경영 시대... 장애인·고령자 위한 '배리어프리' 확산

〈장벽으로부터 자유〉

IT업계, ICT 활용 무장에 서비스 도입
네이버, '웹툰·클로바 케어콜' 공개
키오스크업계, 수어영상기능 제품 선보
SKT, '설리번 서비스·고요한M' 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대두되면서 IT 기업들 사이에서도 '배리어프리'가 확산하고 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벽(Barrier)으로부터 자유'라는 뜻의 합성어로 장애인, 고령자, 유아 등 모든 사람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환경을 뜻한다. 최근에는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같은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정보·교육·문화 접근까지 널리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3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IT업계에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무장애 서비스가 늘고 있다.

배리어프리가 확산하는 데에는 ESG 경영의 보편화, 전세계적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유행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 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전체 인구의 25% 수준에 달한다.

네이버는 웹툰과 네이버 클로바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클로바 케어콜을 체험하는 모습.

/네이버 '클로바' 공식 영상 갈무리

통한 배리어프리를 선보였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1월부터 '배리어프리 웹툰'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술은 네이버의 완결 및 연재중인 18만 개의 웹툰에 AI를 활용, 대체 텍스트를 적용해 시각장애인의 웹툰 감상을 돕는 AI 기술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웹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웹툰의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시키고 이를 다시 청각 정보로 변환시켜야 한다. 네이버는 1년간의 연구 끝에 웹툰 이미지의 대사를 문자 순서대로 바꾸어주는 '웹툰 대체 텍스트 자동 제공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웹툰의 대사를 모바일 앱 화면을 읽어주는 '보이스 오버' 기능과 화면 상태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토크백' 기능을 통해 웹툰 감상을 돕는다.

김대식 네이버 웹툰 AI 리드는 "대체 텍스트 제공은 네이버웹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술적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한국어에서 여러 언어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도 있다. 클로바 케어콜은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식사·수면·건강 등의 주제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답변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AI 콜 서비스다. 이는 네이버의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가 탑재돼 정형화되지

않은 대화도 AI가 이해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로이 대화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지자체와도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있는 2만 5천여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뿐 아니라 사학연금공단, 대한노인회, 행정안전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등에 활용된다.

키오스크 업계에도 배리어프리 바람이 불고 있다. 키오스크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닷과 마음AI 등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 서비스와 촉각 디스플레이를 제공해 글자와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휠체어 사용자나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 모니터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 기능을 제공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과 수어 영상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시각장애를 돕는 '설리번 서비스'와 청각장애를 돕는 '고요한M' 등 다양한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리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이 일상 속 상황과 물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음성안내 서비스로, 적용 분야에 따라 설리번플러스·설리번A·설리번과 인더로 구분된다. 설리번 플러스는 스타트업 투아트(Tuat)가 2018년 출시한 AI 기반 시각보조 음성안내 서비스다. 이후 SKT와 협업해 시각장애인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설리번A', 시각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탑재한 '설리번과인더'를 공동 개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해 출시한 설리번과인더에 대해 "멀티모달 AI를 적용해 10억 장의 이미지를 학습해 정교한 이미지 묘사가 가능하다"면서 "기존 학습량의 두 배 수준으로 학습량을 늘려 설리번과인더의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metroseoul.co.kr

“여름 휴가철 대비 항공기 안전관리 총력”

항공업계, 기체고장·결함 등 점검
국토부 “운항 능력 등 개선” 지시

국내 항공업계가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항공기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잦은 지연 및 회항 사건 등으로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잦은 항공기 지연 및 회항 사태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국토부 조사를 계기로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22일 대한항공 KE189 항공기가 대만으로 향하던 중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 지난 6월13일 티웨이항공 오사카행 TW283 항공기 11시간, 방콕발 인천행 TW183 항공기 20시간 지연에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결국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6월26일 안전운항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운항 능력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체계를 구축하라고 항공사에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체 고장 및 결함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항공사들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모의훈련을 진행하거나, 국토부에 인가받은 규정을 바탕으로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항공사들은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LCC업계 맞춤형 격인 제주항공은 국내 LCC 중 유일하게 대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뮬레이터 2대를 운영하는 등 위기 대응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등 안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7월 중 국토부 안전 점검

을 받을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안전 데이터 공유 ▲안전문제 자율보고 ▲관리자급 안전회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에는 ▲항공기 사고 대응 종합 훈련 ▲산업재해 비상대응 훈련 ▲안전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항공 운송협회로부터 국제항공안전평가 인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국토부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기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이 있기 전 자체적으로 B737-8 여압장치 등을 점검했고, 보유한 4대의 항공기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품, 대체기 정비, 운항,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 체계를 구축한 상태지만,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할 계획이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de@

제주항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 ‘앞장’

제주항공이 한국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해외 노선 다변화를 통한 현지 한국관광 관심도 증대, 외국인 대상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외국인인 한국 여행 여객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여행 수요가 높은 일본 노선에서 도쿄·오사카 등 간선 노선뿐만 아니라 시즈오카·히로시마 등의 지선 노선 운항도 확대하고 있다.

또 국내 여행객들에게는 새로운 여행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취향 지역 거주자들의 한국관광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박대성 수습기자

LGU+, 자체 SNS ‘베터’ 커뮤니티 도입

사진과 함께 1500자 글 작성 가능

LG유플러스는 일상기록 플랫폼인 '베터(Better)'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고객이 함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정식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베터'는 사진과 함께 1500자 이내의 가벼운 글에 최적화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으로,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11만 명, 누적 기록수 18만개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베터 커뮤니티'는 이용자들이 타인과 함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용자는 독서·달리기·와인 등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과 기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말 오픈 베터로 커뮤니티 기능을 구현한 후 2개월간



LG유플러스 임직원이 베터 커뮤니티 기능을 소개하는 모습.

/LGU+

180여개의 커뮤니티가 개설됐고, 2000여 명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베터 커뮤니티는 서비스 이용 패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커뮤니티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하는 이용자는 일반 이용자에 비해 8배 가량 긴 시간을 앱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베터에 등록된 기록 중 약 16%는 커뮤니티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남영 기자

삼성, 전세계 7개 도시서 '갤럭시 AI 체험'

서울·프랑스·미국 등서 운영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갤럭시 인팩' 직후, 갤럭시 신제품과 한층 새로워진 갤럭시 AI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서울,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전세계 7개 도시에서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Galaxy Experience Space)'를 10일(한국은 11일)부터 운영한다.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는 창의·생산·소통 등 신제품과 갤럭시 AI가 선사하는 새로운 일상을 방문객들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광고 심의필 : 2022-1626-0014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겔 하나쯤
있어야지!

국민의 겔! 남궁민의 겔!
록소안겔



테니스·골프 엘보우엔 **록소안겔**

테니스 엘보우 주요 증상

- *팔꿈치 통증, 특히 주부들에게 발생
- *팔과 손목을 쓰는 동작에서 통증



- 테니스 엘보우
- 손, 손목 통증
- 어깨 통증
- 근육통, 관절통
- 타박상, 염좌(뺨)
- 요통

“하반기, AI 반도체 열풍 계속된다 밸류업 세제지원에 금융주도 강세”

美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 불확실성
주식 관련 지수적 움직임 제한적
반도체·전력기계 등에도 관심

금융당국 구체적 세제지원 언급에
밸류업 대표 금융·증권주 신고가

하반기 주식시장 대안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밸류업 프로그램이 언급되고 있다. AI 열풍 지속과 정부의 주주환원 세제 인센티브 발표에 시장의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미국 대선, 프랑스 및 영국의 조기 총선 등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지수 추종보다는 특정 섹터, 테마에 대한 주목도가 오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반기 주도주로는 AI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 종목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제 이슈 중 하나이다.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진다. 게다가 당선자에 관계 없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글로벌 변수가 잔존할 전망이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자산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반영됨에 따라 주식과 관련해 지수적인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요 테마로는 상반기에 이어서 AI가 2024년 하반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혜 테마에 대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AI 열풍으로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반도체, 전력 기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음식료, 게임, 그리고 수출 수요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상승주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활기찬 모습의 이미지.

가 견조하게 유지될 화학(소재화학), 바이오(CDMO)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추가로 국내 시장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슈가 공존한다. 전날 금융당국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주주환원분 5%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책을 내놓았다. 더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참여 기업 등 기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 다양한 밸류업 세제 지원이 나오자 밸류업 관련주도 다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날 밸류업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금융·증권주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날 KB금융 1.4%, 신한지주 3.2%, 하나금융지주 2.7% 등이 모두 상승했다.

하인혁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밸류업 수혜, 예상되는 관점에서 금융주를 선호하고 있다”며 “밸류업 수혜,

금리 하단 방어 기대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센티브 중 ▲주주환원 증가 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 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밸류업 기업 기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는 배당을 주는 쪽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볼 수 있고,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14 → 9%, 최대 45 → 25%)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 등은 배당을 받는 쪽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해석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세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긍정적”이라며 “1993년 도입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20%를 가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지배주주 입장에서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KB증권,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만든다

‘My star 인텍싱’ 랩 서비스

KB증권은 ‘KB증권 다이렉트인텍싱’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My star 인텍싱(KB Able Account-지점운영형)’ 랩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KB증권이 지난달 28일에 출시한 ‘My star 인텍싱’은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인 ‘다이렉트인텍싱’ 기법에 전문 프라이빗뱅크(PB)의 역량을 더해, 고객과의 일대일 컨설팅으로 개인화된 투자지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일임형 랩 어카운트 서비스다.

‘My star 인텍싱’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전문 역량을 갖춘 PB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투자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본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KB증권 다이렉트인텍싱’의 프리셋(사전 제시된 예시 포트폴리오)을 ‘My star 인텍싱’ 랩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KB자산운용의 ‘Myport’ 엔진을 활용하여 더욱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KB증권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시장 핵심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업들을 선별한 ‘AI 반도체의 꽃, HBM 반도체 전략’ 프리셋, 기업가치 제고 수혜 관련 ‘뚝딱! 기업가치 제고, 저PBR & 저평가주’와 같은 국내주식 프리셋,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미국주식 프리셋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객이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300여개의 다양한 테마별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son@

ETN 시장 ‘꿈틀’... 증권사, 상품 출시 분주

첫 발표보다 14조가량 규모 커져
ELS·ETF 단점 보완으로 ‘주목’
KB·미래에셋증권, 美 주제로 출시

분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상장지수증권(ETN)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 5월 ETF·ETN 시장 전체자산총액은 약 16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 기록한 108조7000억 대비 53조 증가한 수치다.

상장지수상품(EPT)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기에 ETN 투자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 5월 기준 ETN의 지표 가치총액은 약 1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ETN 첫 시장동향을 발표한 2016년 3월에 비해서는 약 14조원가량 규모가 커진 셈이다.

ETN 상장 종목 개수도 2016년 3월 81개였다면, 현재 국내에 상장된 전체 ETN은 387개에 달한다.ETN이 이처럼 증가하고 주목받는 이유는 ELS와 ETF의 단점을 보완한 점이 강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LS(주가연계증권)는 일반적으로 중도에 사고팔 수 없다는 점이, ETF는 지수나 주가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ETF는 세부 구성 종목과 운용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초지수와 ETF 간 수익률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ETN은 기초지수변동에 따

른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만들어져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며, 증권사가 무보증·무담보 신용으로 발행하기에 기초지수가 변화한 만큼 수익률이 결정된다. 만기가 되면 투자자에게 성과대로 수익을 지급하며 만기는 1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하다. 또한 기초지수 구성 종목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하는 ETF와 달리, ETN은 5개 이상만 담으면 발행할 수 있다.

ETN 상품은 천연가스나 원유처럼 원자재 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미국 시장을 주제로 한 ETN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실례로 KB증권은 ‘KB 미국채 10년 ETN’를 비롯해 미국채를 담은 ETN 6종목을, 삼성증권은 환노출형 나스닥 100 ETN을 신규 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을 테마로 3종목만 편입한 성장형 상장지수증권(ETN)을 업계에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규모 150조를 돌파한 ETF와 비교하면 작은 시장일 수 있지만 원자재 밸리시기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에게 ETN은 인기가 있다”며 “종목 투자가 조심스럽고 일정한 수익을 원한다면 들여다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ETN을 매매할 때 상장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무보증·무담보 상품에 발행 증권사가 파산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 신용과 원자재 연동 ETN은 위험하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조언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식을 줄 모르는 AI 인기... ETF 수익률 ‘쑥’

최근 한달간 ETF 수익률 1·2위 차지
AI 수혜주 기대 기업에 투자자 ‘관심’
삼성증권, 전력 인프라 종목 출시 예정

빅테크,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AI 투자 열풍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AI 관련 ETF가 이 같은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ETF 수익률 상위 1, 2위에는 AI 관련 ETF가 자리했다. ACE 미국빅테크 TOP7 PLUS 레버리지와 AR IRANG 미국테크 10레버리지 iSelect는 각각 약 28%, 27%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레버리지도 20%의 수익률을 기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ACE AI 반도체 포커스(13.30%), HANA RO 글로벌 반도체 TOP10 SOLACTIV

E(12.75%), ACE 글로벌 반도체 TOP4 Plus SOLACTIVE(12.31%), KODEX 미국 반도체 MV(11.06%), KOSEF 글로벌 AI 반도체(10.12%) 등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AI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데다 최근 애플, 어도비, 브로드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과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ETF의 수익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AI와 관련한 미국 빅테크, 반도체 위주에서 전력 인프라, 에너지 등 AI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전력 인프라 관련 ETF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미국과 한국 시장에 상장된 AI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KODEX 미국 AI 전력 핵심인

프라 ETF’와 ‘KODEX AI 전력 핵심 섹터 ETF’ 2종을 오는 9일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의 액티브 ETF를 위탁 운용하는 자회사 삼성액티브자산운용도 같은 날에 ‘KoAct AI 인프라 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하반기에도 빅테크, 반도체 등 AI 관련 ETF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자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등에 투자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기업들의 실적 성장도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AI 관련 산업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며 “이 같은 전망을 올 하반기도 해당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배터리 수요 정체기… 위기를 도전·혁신의 계기로 삼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수익성 하락, 업황 탓 하지말고 ‘성장 전망’ 낙관하는 것 경계를”

“질적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일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할 근성과 체력을 길러야 할 뿐 아니라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만의 도전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4일 오전 구성원들에게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도전과 혁신의 DNA를 되살립시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배터리 수요 정체기에 빠진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도전과 혁신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다.

김 사장은 “우리 역시 공격적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을 확보했지만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소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LG에너지솔루션

기술·공정 혁신이 더디어졌고, 구조적 원가 경쟁력도 부족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어려운 업황 탓으로 돌리거나 미래 성장 전망이 밝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미래를 낙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과거 배터리 분

야의 혁신을 주도하며 자리 잡은 일등이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자만심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편더멘탈(기초 체력) 강화’에 대한 집중을 강조했다. 기존 관행들을 과감하게 바꾸고 투자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현재,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지금까지 공격적인 수주와 사업 확장을 추진하며 인력, 설비, 구매 등 분야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누구보다 먼저 시장을 개척하며 생긴 일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축적된 운영 역량과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속도 조절과 조직별 투자 유연성 및 효율성 재고에 나설 방침이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밝지만 미래를 주도할 진정한 실력을 갖추기는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업과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며 조직 전체의 혁신을 가속해야 할 시기”라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ids@metroseoul.co.kr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 지원 참여

부산항만공사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 부산항 협력사들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해운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협약을 통해 부산항만공사는 대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ESG 규제에 대응하며 현실적으로 ESG 경영 도입이 어려운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들을 위해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ESG 지표 준수율이 80% 이상인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동반위 성과공유제와 ESG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부산항 항만 생태계 전반에 ESG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기반을 다지고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부산항의 ESG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온라인 판매 두려움, 자신감으로… ‘e-러닝 교육’ 큰 도움”

대전 도안동 카페 ‘수레단’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 사업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참여 마케팅 전략·홍보기술 등 배워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카페 수레단.

“뜻하는 바를 마음의 수레에 가득 담아 동글게 잘 굴러가라”는 덕담이 담긴 수레단은 지역에서 정평이 난 곳으로, 전통음식 기능 보유자이자 떡 명장인 김명희 명장이 딸과 함께 운영하는 한식 디저트 전문점이다.

김 대표는 “오랜 시간 우리 떡을 연구하고 관련 외부 강의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코로나19로 잠시 여유가 생겨 조리과를 졸업한 딸의 권유로 2020년에 한식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김 대표는 퓨전떡, 정통떡, 풍미와 식감을 살린 진정한 맛을 고수하는 경영철



수레단의 대표 제품 호두강정.

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키워 전자상거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한 ▲디지털 특성화 대학 ▲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 e-러닝 교육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과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김

대표는 먼저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특성화 대학’에서 교육을 들으며 디지털 활용에 첫발을 내디뎠다.

가장 먼저 받은 교육이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이었다.

그는 “나이도 있다 보니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수업이 있는 날이면 건양사이버대에 출석하며 관련 강의와 실습을 통해 디지털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e-러닝 교육을 수강하며 온라인 시장 준비 전략, 마케팅 전략, 홍보 기술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기초를 탄탄히 쌓고 있다. 특히, 개별교육을 통해 실제 온라인 판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노하우를 접하며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것들을 터득하고 있다.

이런 노력 끝에 김 대표는 쿠팡의 ‘전통과자·떡 카테고리’에 판매 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지금은 전통 간식의 유통기한과 제작량을 고려해 수레단 카페 인기 메뉴인 ‘호두강정’만 단독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 방문자 리뷰와 인스타그램에 제품 제작 과정 영상, 신제품과 선물세트 사진, 매장 공지 사항 등도 꾸준히 안내하며 온라인상에서도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온라인 진출이 필수인 요즘 시대에 막막했던 온라인 활용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부터 실습, 실제 운영 노하우까지 배우며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서 “디지털 특성화 대학과 e-러닝 교육은 온라인을 전혀 모르던 나와 같은 초보도 맞춤형으로 차근차근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 막상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만큼 망설이지 말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과 자생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Y브랜드’ 부스 이미지. /KT

KT

‘Y아티스트레이블’ 과 7일까지 서일페 참여

KT가 청년 브랜드 ‘Y아티스트레이블’과 함께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이하 서일페)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서일페는 올해 17회를 맞는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전시회로, 다양한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참여한다.

KT는 4년 전부터 재능 있는 청년 아티스트들을 선발, Y아티스트레이블을 구성해 브랜드 협업(에피드, LG생건 등)과 해외 탐방(Y원정대), 국내 도서마을 봉사활동(삼시도 꿈그림) 등 다양한 마케팅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서일페 ‘Y브랜드’ 부스도 운영해왔다.

올해 Y브랜드 부스는 KT 온라인 다이렉트 통신 브랜드인 ‘요고’ 캐릭터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캉스 컨셉의 ▲Y아티스트존 ▲요고존 ▲Y브랜드존 3가지 섹션으로 구성했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두산에너지빌리티, K-원전 품질강화 앞장

협력사 현장 기술인들 초청 간담회

“세계 최고의 원전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부회장이 원전 협력사 기술자들을 만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품질 강화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출범한 ‘K-원전 기술 서포터즈’의 일환으로 원전 협력사 현장 기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3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

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원전 주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주요 협력사 기술인 18명, 관리자 3명,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김종두 원자력BG장, 용접·가공·비파괴 분야 명장 3명 등이 참석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간담회를 통해 ▲품질 개선 우수사례 공유 ▲우수 기술인 시상식 ▲협력사 기술인의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협력사 기술인들은 두산에너지빌리티 기술명장들과 함께 창원 공장에서 기술을 공유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제철, 스마트팩토리 구축 속도

싱가포르 ARTC와 AI관련 NDA 체결

현대제철이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산하 연구센터(ARTC)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4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일 싱가포르 ARTC 본사에서 개방형 혁신 시스템 기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관련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싱가포르 개방형 혁신 시스템은 싱가포르 정부, 대학, 기업 등이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며 기업이 필요한 기술

을 발굴하고 공동 개발하는 생태계를 말한다.

내부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의 아이디어, 기술, 전문성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현대제철은 기존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와 협력하고 있던 ARTC와 함께 제품 표면 결함 파악 등에 적용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한다. 현대제철은 이를 통해 철강 제조공정의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사우디·오만, 녹색산업 협력 확대 올해 상반기 수주·수출 15조 달성

환경부, 연간 목표 22조 가시화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등 쾌거
환경장관 “지난해 20조 넘을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녹색산업 수주·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둔 2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우디 및 오만 등지에서 협력 사업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기준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은 15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20조 4966억 원의 실적을 낸 것과 비교해 올해 들어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민·관이 원팀이 돼 노력한 결과, 상반기까지 15조 원의 수주·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한 이후 올해엔 22조 원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간 목표 달성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오만의 해수담수화시설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사업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며 “오만의 경우, 작년년부터 제가 직접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오만의 압둘라 알암리 환경청장과 면담하고 있다. 양측은 환경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

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수주는 향후 본사업 참여로까지 이어지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상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GS이니마) 및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상하수도 설계사업(건화) 등이 있다.

GS이니마가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난 2020년 12월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장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오만에 파견해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알 아우피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또 오만을 그린수소 중

점 지원 국가로 선정해 사업 타당성조사,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기업들이 오만 정부로부터 그린수소 생산 사업권을 획득해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인 건화는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를 설계함으로써, 후속으로 발주 예정인 건설시공 등 본사업(6조 원 규모)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을 밀착 지원해 목표 달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4개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보호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기술발전 속도 대응, 핵심기술 재점검

정부가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 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4개가 신규 지정된다.

반대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

력 분야 기술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육안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은 기술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재근로자, 빠른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근로복지공단은 4일 오후 서울 명동로얄호텔서울에서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빠른 1964년 도입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기념행사는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의료 전달체계 강화방안, 소속병원의 전문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와 산재 시범재활의 의미 등 2개 세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도입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하는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손본다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정책디자인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의무교육 6년을 맞이해 국민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장애인고용공단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11명, 전문가 그룹과 함께 ‘2024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다. 이번 디자인단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업체 교육담당자, 장애인근로자, 일반 국민, 강사, 대학생 및 학계, 법정 의무교육기

관, 공공정책서비스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를 위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교육정책 개선에 많은 아이디어를 접목해 국민과 소통하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3만여개 사업장 816만여 명이 이수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훈 “올해 사과·배 가격 상승 없을 것”

(농식품부 차관)

조생종 곧 출하... 농산물 물가 안정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사과 및 배 가격이 아직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서도 조생종(일찍 성숙하는 품종)이 곧 출하됨에 따라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내에 또다시 사과·배 값이 치솟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채소류가 농산물 물가의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가 전월보다 11.9% 하락했다”며 “배추와, 대파, 풋고추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제철인 참외와 수박은 전월보다 각각 25.1%, 23.4% 하락해 5월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사과와 배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강세이나 현재 작황이 양호한 조생종 사과 등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은 (앞으로 당분간)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사과·배의 화상병 및 흑성병의 발생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0.15% 수준”이라며 수



지난 상반기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배 가격이 개당 5000원에 달했다. /뉴스시스

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기상 호전 등으로 전월대비 5.3% 하락했다.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채소류 값은 전월에 비해 상당 품목이 내렸다. 배추(-22.9%), 대파(-13%), 풋고추(-16.2%) 등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에 대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 강화에 나선다. 여름철 정부 가용물량으로 배추 2만3000톤(t), 무 5000t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여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력거래소, 제1기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

“세대간 시너지 창출, 조직문화발전”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3일 나주 본사에서 세대 간 시너지 창출과 균형있는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제1기 KPX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KPX 시니어 컬처리더’는 기존 운영하던 기관 조직문화 개선 추진체 ‘주니어 컬처리더(5년차 이하 직원 구성)’를 확장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주니어 컬처리더와의 합동 크로스 멘토링, 번아웃 극복

코칭, 목적 달성 경험과 업무 노하우 공유, 서로가 원하는 직장내 에티켓 캠페인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송석돈 전력거래소 경영지원처장은 출범식에서 “새롭게 도입된 KPX 시니어 컬처리더가 공공기관의 세대 간 소통강화와 직원 주도형 조직문화 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6월 조직정밀 진단을 통해 직원 니즈 기반의 ‘KPX 조직문화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건강, 책임, 혁신, 동기 등 5대 분야에 걸쳐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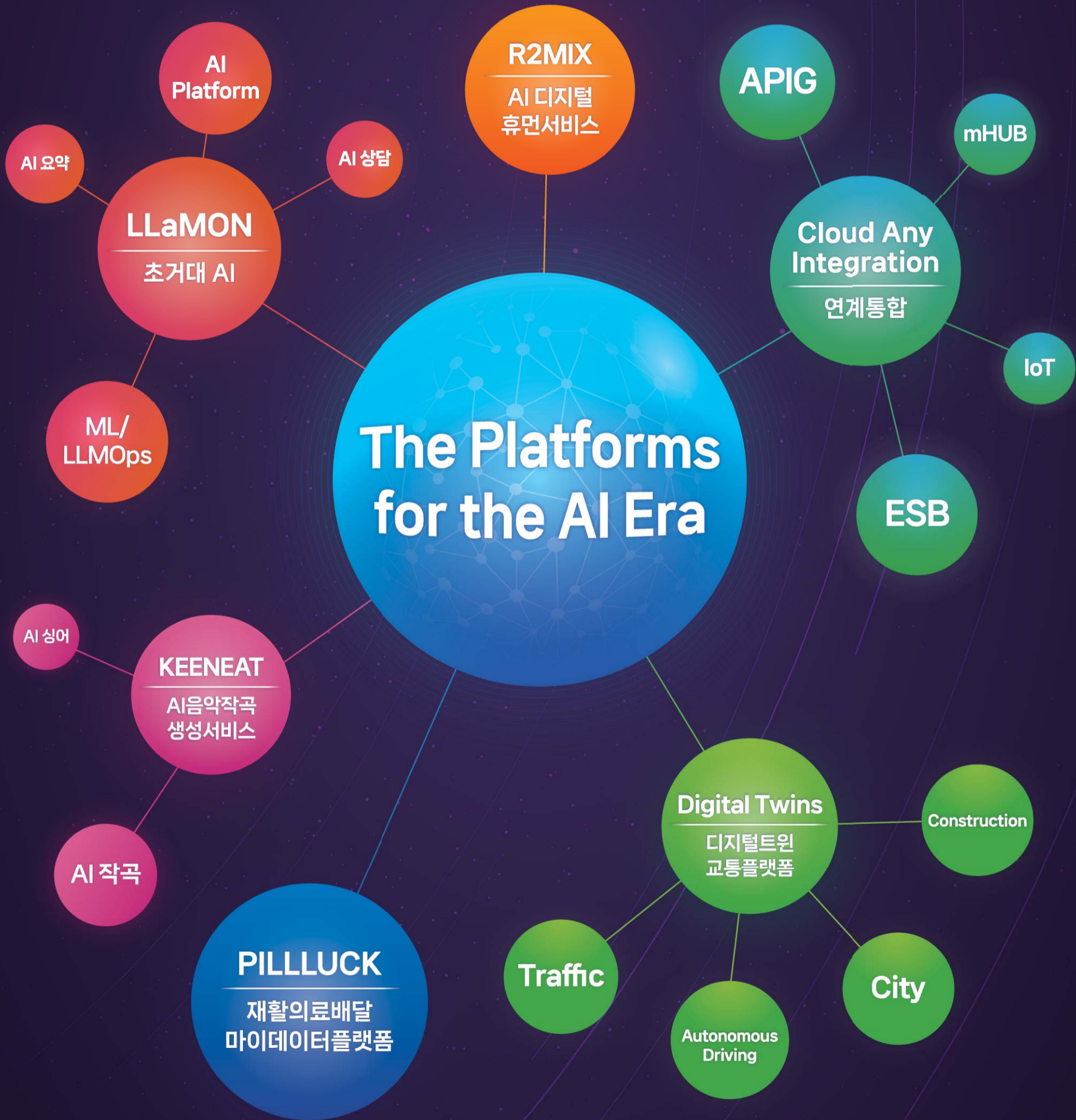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kakaomes netmarble NCS DEVSISTERS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배형욱
데브시스터즈 CBO

‘IP·퀄리티·다양성’ 앞세워 하반기 글로벌 시장 출격

게임업계, 가지각색 신작 예고

코로나19로 한때 호황을 누렸던 게임업계는 엔데믹 이후 유저들의 게임이용 시간·소비가 줄어들자 불황 국면을 맞았다. 그 과정에서 늦어지는 신작,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악순환은 장기화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각 사의 방식대로 회복에 집중해 오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은 고무적이다. 대다수 게임사들은 우선 본업인 신작 출시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신작흥행이야말로 기업의 실적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작 개발 과정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스토리, 캐릭터 등 기본적인 것뿐 아니라 장르의 다양화, 글로벌 다각화,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 퍼블리싱 등 온 과정을 모두 예민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길게는 몇 년을 한 게임 개발에만 매진한 신작이 출시 후 흥행하지 못했다고 해도 탈할 곳은 없다.

분명한 건 끝까지 버티는 게임사가 결국은 승리를 맛볼 것이라는 점이다. 유저들의 입맛에 맞는 게임성이 흥행과 직결되는 만큼 신작 개발과정을 더욱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신작들이 다수 출시될 예정이다. 게임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의 실적 반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메트로경제>는 하반기 신작 게임 출시 예정중인 몇 게임사들의 개발자들을 만나 현시장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3주에 걸쳐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기업들은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엔씨소프트 ▲데브시스터즈다.

(편집자주)

◆카카오게임즈, 신작 필두 글로벌 진출 꾀할 것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핵심 전략 목표를 ‘글로벌 진출’로 설정했다. PC·콘솔 등 멀티플랫폼 대형 IP를 확보해 글로벌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아키에이지2’와 ‘크로노 오디세이’를 필두로 하반기 전략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중 역할 수행 게임(이하 MMORPG)인 ‘아키에이지2’는 엑스엘게임즈가 지난 2013년에 출시한 PC MMORPG ‘아키에이지’의 후속작으로, 송재경 CCO가 개발을 총괄해 업계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아키에이지2’는 게임 엔진 최신 버전인 언리얼 엔진5 기반으로 탄생, 사실적인 그래픽에 특징적 을 조준하지 않는 논타깃팅 액션 게임이다. 원작

의 방대한 오픈월드와 생활 콘텐츠, 무역과 해상 전 또한 이번 작품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업데이트됐다. ‘아키에이지2’는 2025년 이후 PC와 PS 5, 엑스박스 시리즈 X/S로 출시 예정이다.

‘크로노 오디세이’도 하반기 주목되는 게임 중 하나다. 지난 3월 크로노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크로노 오디세이’의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크로노 오디세이’는 첫 구매만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바이 투 플레이’ 방식으로 출시 예정인 오픈월드 액션 MMORPG 게임이다. 소울라이크 장르 못지 않은 정밀한 전투 시스템이 대표적 특징이다.

카카오게임즈

PC·콘솔 등 멀티플랫폼 대형 IP 확보
아키에이지2·크로노 오디세이 필두 전략

넷마블

고퀄리티 게임성으로 국내외 시장 공략
인기·자체IP로 신작 4종 연이어 출시

카카오게임즈는 앞서 신작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각 지역에 맞는 현지화 작업에 집중한다. ‘아키에이지 위’는 올해 상반기 대만, 일본, 홍콩 등을 포함한 9개 지역에 정식 출시 예정이다. 특히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하드코어 MMORPG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으로, 카카오게임즈는 2022년 ‘오딘’을 현지에 안착시킨 과거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PC 온라인과 콘솔, 모바일을 아우르는 다양한 플랫폼에 양질의 게임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넷마블, 게임성과 다양한 플랫폼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넷마블의 하반기 주요 전략은 ‘고퀄리티 게임성’과 ‘국내외 시장 공략’이다. 이에 넷마블은 하반기에 신작 4종인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리본 ▲킹아서: 레전드 라이즈를 연이어 출시한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출시 예정인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는 캐릭터 성장을 골자로 하는 작품으로, 쉬운 게임성과 IP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노리고 있다.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는 인기 애니메이션 IP

‘일곱 개의 대죄’를 기반으로 쉬운 게임성을 자랑한다. 이미 넷마블은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로 6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IP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표현력을 검증한 바 있다.

넷마블은 또 지난해 지스타2023 출품작이었던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리본’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04년 출시돼 글로벌 54개국에서 2000만 명 이용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RF 온라인’의 IP를 계승한 SF MMORPG다. ‘데미스리본’은 자체 IP인 ‘그랜드크로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 수집형 RPG 게임이다.

이 밖에 넷마블은 북미 시장을 노리는 ‘킹아서: 레전드 라이즈’를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이 게임은 ‘원탁의 기사’ IP를 기반으로 한다크 판타지 세계관으로, 퍼즐 및 기믹을 활용한 시네마틱 스토리텔링이 재미 요소로 수집형 전략 RPG로 제작됐다.

넷마블 관계자는 “하반기는 인기 IP 기반 게임부터 새로운 세계관을 선보이는 자체 IP 작품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신작을 중심으로 고퀄리티 게임성은 물론, 다양한 플랫폼 등을 지원하며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엔씨소프트, 하반기 10종 신작 통해 글로벌 진출 속력

하반기 엔씨소프트는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10종의 신작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 달 27일 얼리 액세스 출시를 앞둔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를 시작으로 하반기 스윙링 RPG ‘호연’과 기존 IP를 활용한 신규 장르 게임도 준비 중이다.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택탄’, ‘아이온’, ‘LLL’ 등 대작 3종을 비롯해 캐주얼 게임 2종, 기존 IP 활용 게임 2종 등을 개발 중에 있다.

엔씨소프트는 신작 출시 외에도 기존 게임을 활용한 글로벌 지역 확장도 꾀하고 있다. 아마존게임즈와 협력해 9월 17일 글로벌 론칭을 시작하는 ‘TL’, 지난해 판호를 발급 받아 연내 중국 출시를 위해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인 ‘블레이드&소울 2’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동남아 우수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리니지2M 등의 동남아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구글 클라우드 등과 협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올 하반기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데브시스터즈, ‘쿠기런: 모험의 탑’

데브시스터즈는 지난달 26일 선보인 신작 ‘쿠기런: 모험의 탑’을 필두로, 올해 하반기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최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쿠기런: 모험의 탑’은 출시 직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대만, 태국 등 주요 시장에서 앱스토어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하루 만에 100만 다운로드, 한국 기준 매출 순위 애플 앱스토어 3위, 구글 플레이 5위를 달성했다.

모바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직접 조작의 전투 경험과 실시간으로 유저 간 협력하는 협동 액션 등 ‘쿠기런: 모험의 탑’이 가진 독창적인 게임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장르 편중과 다소 포화돼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신선한 시도라는 반응이다.

엔씨소프트

2025년까지 대작 비롯한 10종 출시 계획
기존 게임 활용한 글로벌 지역 확장 도모

데브시스터즈

쿠기런 신작, 美, 캐나다 등 순위 1위
서비스 라인업 강화·매출 확대 도모

더불어 쿠기런 모바일 게임 최초 3D 모델링을 사용해 각 쿠기별로 생동감 넘치는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유저 만족도도 높다.

데브시스터즈는 ‘쿠기런: 모험의 탑’ 출시에 앞서 해외 게임사 요스타와 일본 지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세계 3대 게임 시장으로 꼽히는 일본이 높은 현지화 완성도를 요구하는 곳인 만큼 최적의 게임 서비스와 로컬 전략을 적극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작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기존 라이브 게임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추가 성장 및 영향력 확대도 추진한다.

회사는 이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증대 및 연간 실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형욱 오븐게임즈 대표는 “쿠기런: 모험의 탑 출시 직후 빠르게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저들의 관심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최빛나·안재선 수습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vina@metroseoul.co.kr YouTube



돌아선 '키맨'... 한미약품 송영숙·임주현 모녀 손 잡았다

경영권 분쟁 새 국면

개인최대주주 한양정밀 신동국 송영숙·임주현 모녀에 지분 매수 사이언스 지분 6.5% 444만 여주 송 회장 관계자 지분 48.19% 공시 상속세 마련, 이슈도 해소 될 듯 임종윤·종훈 형제 '경영권' 위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고,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형제 경영'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 보였던 한미약품그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을 지지했던 '키맨'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으로 돌아선 것이다.

4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주식매매계약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로 444만 4187주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각각 신 회장 12.43%, 송 회장 11.93%, 임 부회장 10.43%다.

이번 주식매매계약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신 회장 18.92%, 송 회장 6.16%, 임 부회장 9.70%로 변동될 전망이다. 신 회장이 송 회장으로부터 394만 4187주, 임 부회장으로부터 50만 주를 취득하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거래종결일은 오는 9월 3일이다.

이번 거래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했고,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식 가치 평가를 방해했던 '오버행 이슈'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사이언스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송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35.76%에서 48.19%로 변경됐음을 공시했다.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 체결에 따라,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합산 지분에 신 회장의 지분이 더해져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약 35%에 달한다. 이밖에 친인척과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 우호 지분까지 확보한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지분율은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에 비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각각 12.46%, 9.15%다.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이사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그룹

진을 새롭게 구성해 임종윤·종훈 형제 측으로부터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후보들이 모두 이사회 진입에 성공, 형제 측은 모녀 측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 차례 승리했다.

이후 한미사이언스는 가족간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뉴 한미'를 경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송영숙·임종훈 공동 대표이사 체제가 임종훈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급변하는 등 갈등 봉합은 어려움을 겪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의 경우, 지난 6월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목표했던 한미약품 대표이사에는 오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은 그동안 임종윤·종훈 형제 측을 공개 지지하며 승패를 갈랐다. 신 회장이 이번에는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손을 잡아 97일 만에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향방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신 회장은 송 회장과 함께 '한국형 선진 경영 체제'를 통해 한미약품그룹이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그룹은 한국형 선진 경영 체제는 그룹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창업자 가족 등 대주주와 전문 경영인이 상호 보완해 나가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기존 오너가 중심의 경영 체제를 쇠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해 경영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는 사외이사와 참여형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면세점, 日서 캐릭터 전문매장 오픈

동경긴자점에 '긴자프렌즈' 벨리콤 등 3000여 상품 준비

롯데면세점이 동경긴자점에 '긴자프렌즈' 캐릭터샵을 오픈하며 글로벌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지난 3일 롯데면세점은 일본 동경긴자점 8층 1차 재단장을 마치고 캐릭터 전문 매장 '긴자프렌즈'를 열었다. 엔데믹 이후 동경긴자점을 방문하는 고객군 및 이들의 쇼핑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브랜드 라인업을 개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 동경긴자점 긴자프렌즈 매장은 총 154평(509㎡) 규모로 조성됐으며, 3000여 상품을 준비했다. 먼저, 롯데그룹 콘텐츠 사업의 핵심 캐릭터인 '벨리콤'이 긴자프렌즈를 통해 일본 면세채널에 처음으로 진출해 해외판로 개척에 나섰다.

이어 국내 토종 브랜드인 잔망루피와 무직타이거, 폴리, 젤리크루 등과 협업해 일본 현지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IP를 론칭했다. 대표적으



롯데면세점 동경긴자점 직원들이 '긴자프렌즈' 캐릭터샵으로 탈바꿈한 매장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로 과찰이, 놀자곰, 망상리토끼들, 영이의숲이 입점했다. 나아가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원피스, 귀멸의칼날, 나루토, 포켓몬, 산리오캐릭터즈 등도 마련했다.

롯데면세점은 기존 부티크와 시계 등 중고가 브랜드들로 구성된 구역을 캐릭터 완구와 액세서리 등이 즐비한 친숙한 매장으로 꾸몄다. 코로나19 이전 높은 구매

력을 자랑했던 중국 단체관광객 선호도에 초점을 맞췄던 상품구성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다국적 고객 그리고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콘셉트로 확장했다.

안대현 롯데면세점 글로벌사업부장은 "8년 만에 재단장한 롯데면세점 동경긴자점에 많은 고객이 방문해 즐거운 쇼핑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마트, 베트남 하노이센터점 리뉴얼

'넘버원 그로서리 마켓'으로 오픈

롯데마트가 4일 하노이센터점을 리뉴얼 오픈하고 베트남의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할 '넘버원 그로서리 마켓'에 도전한다.

2014년 9월에 오픈한 롯데마트 하노이센터점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시 바

딘 지역 '롯데 하노이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하노이센터점 인근에는 국제 학교 및 대학교가 위치해 외국인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한

하노이센터점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넘버원 그로서리 마켓'으로 도약하기 위해 식료품 매장 면적을 기존 대비 20% 이상 확대한 '그로서리 전문 매장'으로 하노이센터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한국에서 롯데마트가 쌓아온 유통 노하우가 담긴 '그로서리 전문 매장'이라는 틀 아래 현지 쇼핑 문화를 접목하여 베트남의 차세대 식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다.

/최빛나 기자

골든블루 '하이볼 믹스셋' 콘텐츠 공개

'DJ 스프레이' 플레이리스트 소개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골든블루는 '골든 하이볼 믹스셋' 시리즈의 첫 번째 콘텐츠를 골든블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골든 하이볼 믹스셋 시리즈는 K-하이볼의 대표 주자인 '골든 하이볼'을 즐기는 공간과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국내 최정상급 디제이들이 직접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자는 화려한 테

크닉을 자랑하는 'DJ 스프레이'다. DJ 스프레이는 90년대 음악부터 현대적 비트까지 고루 활용하는 아티스트로 트렌디한 젊은 감성과 함께 골든 하이볼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일 공개된 DJ 스프레이 콘텐츠 티저 영상은 바이닐(LP)을 활용한 디제이 장면을 통해 소비자들의 공감을 자극시키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본편 영상은 금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며 골든블루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

100년 역사·노하우 담은 30도 소주

하이트진로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최고급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 100주년 에디션(이하 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사진)'을 17일 출시하고 한정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은 하이트진로의 100년 역사와 양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수 30도의 최고급 증류식 소주다.

최고급 임금님표 이천쌀만을 사용해 3차례 증류한 최고 순도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의 원액과 '일품진로 23년' 묵통숙성원액을 블렌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목넘김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스트레이트, 온타락 등 다양한 음용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맛을 느



낄 수 있다.

제품 패키지는 일품진로 고연산의 시그니처인 블랙 사각병과 골드 왕관을 유지하면서 자개 디자인을 적용해 전통미와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이번 '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은 창립년도를 기념해 1만9240병만 생산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전국 가정 채널 및 고급 식당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야구사랑’ 김승연, 선물 들고 한화이글스 경기장 찾아 격려

〈한화그룹 회장〉

지난달 27일 대전 이글스파크 방문
선수 개개인 ‘이동식 스마트 TV’ 지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이글스의 승리를 기원하며 선수단 전력강화 및 격려를 위해 선수 개개인에게 ‘이동식 스마트 TV’를 지급했다.

4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달 27일 팬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찾았다.

김 회장은 경기 전 김경문 감독과 주장 채은성 선수를 만난 자리에서 최신형 이동식 스마트 TV를 선물했다. 지난 상반기 상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하반기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를 방문한 팬들과 인사하고 있다.

실시간 전력분석 자료 공유와 개인에서 선수들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전력분석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언제든지 구단 인게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히츠(H.I.T.S.)’에 접속할 수 있어 상대팀 전력분석과 함께 상세한 개인 연습량 및 자세 분석 등이 가능하다.

김승연 회장은 올 상반기에만 5차례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찾은 정도로 야구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화이글스 관계자는 “수시 전력 분석 시스템 확인은 물론 조나 팀 단위로 전력 분석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통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완성된 구단 통합 데이터 분석 시스템 히츠의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中요리대회서 한식 알려

CJ제일제당의 한식 셰프 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가 중국에서 K-푸드를 알리는 첨병 역할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중국 칭다오에서 최근 열린 ‘2024 K-푸드 칭도 국제요리대회’에서 ‘CJ 챌린지 라이브 경연’ 코너를 신설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CJ제일제당



농어촌공사 ‘깨끗한 호숫길 만들어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나주호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전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공사 대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 활동이자 친환경 캠페인으로, 저수지 둘레길(호숫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담은 활동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중견기업, 우수 중견기업 성장 노하우 공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2회 중견기업 Sustainability 컨퍼런스’를 열고 50년 역사의 반도체·디스플레이·로봇 장비 전문기업 제우스의 혁신 전략 및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다. 4일 중견연에 따르면 전날 서울 마포 상장회사관에서 삼일PwC와 공동 개최한 행사에는 동아엘텍, 삼익THK, 갑을합섬, 금문철강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한라이프-정재승 교수 차별화된 시니어 공간 연구

신한라이프는 시니어 사업 전담 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지난달 28일 차별화된 시니어 주거 공간 구축을 위해 KAIST 뇌인지과학과와 신경건축학을 적용한 시니어 공간 연구계약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신경건축학은 공간과 환경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측정해 더 나은 건축을 탐색하는 학문으로 인간중심 공간 설계나 건축에 반영된다.

/김주형 기자 gh471@

인사

▲김익립씨 별세, 김태호(해군본부 정훈실장)씨 부친상, 박원희씨 시부상 = 3일,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낮 12시, 042-600-6666

부음

◆KPI뉴스 △기획취재팀장 유충현 △기동취재팀장 전혁수 △탐사전문기자 송창섭 △역사전문기자 김덕련

LG전자, ‘위기동물 보호 캠페인’ 나서

미국 뉴욕 양키스와 협력
홈 구장서 상징적 입양 행사

LG전자의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에 미국 명문 프로야구단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도 협력한다.

LG전자는 뉴욕을 대표하는 스포츠 팀인 ‘뉴욕 양키스’가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The LG Endangered Species Series)’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기후 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아름답고 역동적인 모습을 구현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 중이다.

LG전자는 이번 미국 독립기념일

(7월4일)을 맞아 현지시각 1일부터 미국의 국조(國鳥)인 ‘흰머리수리’의 강렬한 존재감을 3D(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캠페인 취지에 공감한 뉴욕 양키스도 현지시각 2일부터 4일까지 홈 구장인 양키스타디움에서 멸종 위기 동물의 ‘상징적 입양(Symbolic Adoption)’ 행사를 열었다. ‘상징적 입양’은 야생 서식지 복원 및 연구에 기부하면 동물 인형과 입양 증명서 등을 보내주는 자선 활동이다. 기부금은 연내 미국 국립야생동물연맹(National Wildlife Federation)이 미국 전역에서 나무 심기 활동을 펼치는 데 쓰일 예정이다.

LG전자는 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바다사자 ▲그린란드 순록 등을 다룬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마사회, 상반기 말 관계자 시상 행사 개최

경마 팬들과 함께 행사 진행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경마공원 야외 관람대에서 ‘2024년 상반기 말관계자 시상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박종근 서울조교사협회장, 신형철 기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약 10여년 전부터 마주로 활동해온 우태울 마주와 디알엠티티 법인마주가 각각 지난 4월 6월 100승에 도달하며 다승마주의 반열에 올랐다. 지난 6월 1일 경

주마 ‘용암세상’으로 통산 500승을 달성한 이혁 기수에게는 신형철 기수협회장과 경마팬 대표가 트로피와 꽃다발을 선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혁 기수는 같은 날 은퇴식의 주인공이었던 이희영 조교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는 “걱정을 하면 걱정만 커지는 법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또한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주변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000승을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공영홈쇼핑,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

공영홈쇼핑이 ESG 경영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에 나선다.

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상생협력 정책지원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력 지원방송은 공영홈쇼핑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

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평균 8% 수준의 낮은 판매 수수료로 판로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의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스타벅스, 개점 25주년 글로벌 음료 출시

스타벅스가 4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소공 아카데미에서 스타벅스 개점 25주년을 기념하는 ‘프렌치 바닐라 라떼’, ‘더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 등의 음료와 ‘체다&에그 샌드위치’ 등의 푸드를 선보이고 있다.

/스타벅스

오비맥주,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 부스

오비맥주가 7월 3일부터 7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IID)’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올해 10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법 시행 안내와 음주운전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해 장치 제조업체 센텍코리아와 함께 체험부스를 열고 시민들을 만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

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해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미국과 유럽 다수 국가에서 상습 운전자 차량 설치 의무화로 재범률 감소 효과를 얻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올해 10월 25일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치맥페스티벌 방문객들은 오비맥주와 센텍코리아 부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붙여 보며 기기의 작동 원리와 실효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7월 5일 (금)
음력 : 5월 30일

수도권 날씨
23~2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6 | 해질 / 19:57

백령도 20/25, 파주 21/30, 서울 23/29, 양평 23/30, 연천 22/29, 동두천 22/29, 가평 22/30, 인천 23/26, 수원 23/27, 용인 23/27, 평택 22/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 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원인과 불편한 진실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우리는 과다한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살고 있다. 접근 가능한 최근 자료인 KOSIS의 2022년 수치를 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도시지역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81%이지만 이들 3개 지역 거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인구의 50.52%가 된다. 좁은 땅에서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어떠한가? 2022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평균치가 0.78명인데 반해 서울이 0.593명이고, 인천이 0.74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경기도만이 0.839명로서 전국평균치보다 조금 높다. 세종시가 1.121명으로 제일 높고, 다음이 전남 0.969명이고, 그다음이 강원도 0.968명, 경북 0.930명 순으로 수도권 3개 지역의 출산율보다도 모두 높다.

이처럼 수도권의 출산율이 낮은 데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높고, 지방의 출산율이 전국평균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중 하나는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요

인이 출산율 하락에 의한 자연적 인구감소보다는 지방에서 교육, 취업, 거주 등의 목적으로 한 도심으로의 사회적 이동이란 걸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서울, 인천, 경기의 출산율이 1.0명 미만이라는 것은 향후 지방에서 인구유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들 지역도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듯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야기하면 뜬금 없는 연목구어(緣木求漁) 같은 이야기일까? 지방소멸을 막는 데는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 상책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에서 거주, 육아, 교육, 경력단절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출산노력이 향후 뒷받침된다는 기대하에, 필자는 지방소멸을 늦추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도시엔 KTX 정차를 조정하여 정착여 인구의 원심력이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방 도시에 구심력이 작동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의 미흡으로 생기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예방하려면,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최소수준의 보육,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생활가성비가 높은 지역이 되게 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중

양정부 주도로 시군구 중심의 나눠주기식 사업집행은 인프라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마다 광역도시를 핵으로 한 연계를 통해 광역도시 내 중복투자를 막으면서 광역권 내 취업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이동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현재 매년 1조원씩 조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간접세 형태 등으로 서너 배 이상 그 규모를 확충하여 인프라구축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 도심으로의 생활인구유입증가와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우리가 참고해 볼 해외사례로는 일본이 2개 지역에 대한 거주지역 실시로 해당 지역의 소비가 확대된 예이고, 프랑스가 농촌 지역에 대한 매력 공간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증가한 예이며, 독일이 복수주소를 실시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인근 대학의 인구가 증가한 경우 등이 있다. 지역 특성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1년 살기, 복수주소제 등)이 추진되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대처하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짧게 더 많이 보고싶다... '숏폼' 중독 어떡하나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요즘 1분 안팎의 짧게 편집된 영상 '숏폼'이 인기다. 유튜브는 물론, 인스타그램에서도 숏폼을 쉽게 볼 수 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볼만한 콘텐츠를 찾다가 문득 '이럴거면 OTT 유료 결제는 전부 해지해도 되겠다' 싶었다. 벌써 몇달째 넷플릭스와 티빙에는 접속하지 않고 유튜브 숏폼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숏폼 시청시간이 1인당 월평균 46시간 29분으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월 사용 시간인 9시간 14분의 다섯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숏폼 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숏폼 시청 트렌드가 확산되자, '숏폼 중독'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하루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자식이 걱정이라는 학부모들도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뇌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숏폼에 오래 노출되면 뇌 발달에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집중력과 문해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숏폼 중독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짧은 시간 강한 자극을 추구하다보니 오히려 시간을 들여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이들이 줄고 있다. '영화나 책을 한 편 볼 시간에 줄거리 소개 영상을 여러 편 보는 게 낫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온전히 작품을 감상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감독이나 작가의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을 봤는지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는다.

숏폼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디지털 마약 '숏폼 중독'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영상 자극 추구를 지양하고 건전한 미디어 습관을 위한 이용자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 /tree6834@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5일 (금 5월 30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48년생** 개가 사나울수록 술은 시큰해진다는데. **60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72년생** 삶이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선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다. **84년생** 진실은 밝혀져 들수록 때가 묻는다.
- 37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가려서 하라. **49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61년생** 우물에서 송눈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7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한다. **85년생** 세월이 악어뿔 슬픔도 곧 지나간다.
- 38년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50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62년생** 강건일뿐 옳은 말이라도 사납게 하면 홀로 남아 외로워진다. **74년생** 식구가 많으니 돈 문제로 근심도 많다. **86년생** 최신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이다.
- 39년생** 해가 순식간에 지나듯 시간이 빠르다. **51년생** 친구와 견해차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63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75년생** 윗사람의 조언은 수용하는 게 좋겠다. **87년생** 재물이 함몰되는 시기이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 40년생** 지치기 쉬운 날. **52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64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76년생** 리더를 꾸리는 사람이라면 화합을 기본 우선해야. **88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조심.
- 41년생** 한번 레일을 벗어나면 복귀가 힘들다. **53년생** 매장을 남에게 맡기다 보니 매출이 들쭉날쭉하다. **65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근심이 더 쌓인다. **77년생** 모험을 하는 건 위기를 만드는 것. **89년생** 신용은 만인이 걸어야 할 지표.
- 42년생** 입은 무겁게 하고 지갑은 열려라. **5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6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78년생** 이직보다는 기본을 다지고 발판을 만드는 게 순서. **90년생** 영계였던 실태라가 풀린다.
- 43년생** 이사하는 행복할 날. **55년생** 거울은 혼자 못지 않는다. **67년생** 서양에서도 운명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79년생** 출발은 같아도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목적지 도착시각은 다르다. **91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
- 44년생** 여유를 가지고 영화라도 한 편 감상. **56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에 신경 쓰자. **6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다. **80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작은 성파는 눈에 안 들어온다. **92년생**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재산증식을 준비하자.
- 45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을 조심. **57년생** 다 가질 수 없으니 양보하면서 얻자. **69년생** 살면서 어려운 일은 누구나 겪는 일이며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81년생**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안전. **93년생** 가진 돈을 표시하면서 지출.
- 46년생** 인제가 모여도 성과는 낮을 수 있다. **58년생** 불확실성이란 말은 현대를 상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70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82년생** 세익스 피어의 희비극은 보편적 해당하는 일. **94년생** 나만 못한다고 생각지 말 것.
- 47년생** 기차 여행을 떠나보자. **59년생** 원망하는 마음을 접으면 내가 편하다. **71년생** 능력이 없으면 결국 토사구팽이 되는 것이 세상사. **83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95년생** 홍일점(紅一點)도 실력에서 오는 기운이니 실력을 연마.

김상회의四季

우리는 행복한지



지리적 고립 덕분에 고유한 문화를 지켜왔던 아마존의 한 부족이 초고속 인터넷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면서 음란물 중독 등 각종 부작용을 겪는다는 뉴스를 봤다. 덩디더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있는 강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공동 오두막이 거주지다, 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성을 사용하며 고립되어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보존해왔다는 마루보족의 이야기다.

처음엔 문명의 이로움이 부족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부족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느라 가족들과도 대화하지 않거나 인터넷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지는 등 상황이 나빠졌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부족 내부에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됨이 생겨났다. 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하면서 마루보족의 지도자들은 구전으로 전해져 온 부족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아침과 저녁 일부 시간과 일요일엔 온종일로 시간제한을 두었지만 인터넷의 맛을 알아버린 젊은이들에겐 이미 금단의 사과를 맛본 것과 같은 것이라.

마루보족은 공공장소에서 입맞춤하는 것조차 눈살을 찌푸리는 순결한 부족인데 그러한 예절도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달라질까 걱정이란다. 비단 인터넷발달에만 해당하는 걱정은 아닐 것이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지구환경의 파괴와 오염 도덕과 윤리의 무너짐 등 물질적 정신적 폐해가 많아도 과거의 불편함을 다시 감수해 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구의 종말까지도 걱정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명의 이기를 알아버렸는데 폐단이 있다 한들 포기할 용기가 있는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고리즘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6	8		5				
			1			8	2	
								4
	4		7	8		1		
3								7
		7		1	4		6	
9								
	1	5			2			
			6			3	8	5

4	5		7			8		6
						1		
	6			3				
		6	3	9			2	
3								5
	1			2	7	3		
				8			7	
		4						
5	3			4		1	8	

9	8	8	1	6	9	7	2	7
6	2	9	8	8	7	9	1	8
2	1	7	8	2	9	9	8	6
8	9	2	7	1	8	2	6	9
2	7	6	9	9	2	1	8	8
8	9	1	6	8	2	7	7	9
7	6	9	2	9	8	8	2	1
9	2	8	8	7	1	6	9	2
1	8	2	2	7	6	8	9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고리즘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8	1	9	7	2	2	8	6	9
2	6	9	9	8	1	7	8	2
8	2	7	6	9	8	1	2	9
7	8	8	2	7	9	9	1	6
9	9	6	1	8	7	2	2	8
1	2	2	9	6	8	9	7	8
2	9	2	8	7	6	8	9	1
6	7	1	9	9	9	2	8	2
9	8	8	2	1	2	6	9	7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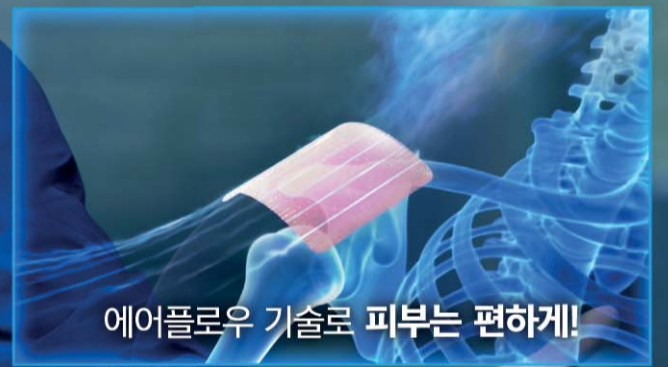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2% 부족해”... 佛 보르도 2023년 빈티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가격이 적당하다면 2023년 보르도 와인을 사겠지만 다른 이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와인 평론가 제임스 씨클링)

“보르도 2023년 빈티지는 블루버스터는 되지 못할 것이다.”(와인 평론가 와인스펙테이터)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빈티지와인의 앙프리에르(En Primeur)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프랑스 보르도를 찾았다. 그런데 극적이 이어진 2022년과 달리 나오는 반응들이 영 시원찮다.

앙프리에르는 보르도 특유의 선물 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와인이 병 속에 담겨 완전한 상품으로 출시되기도 전에 미리 사들이는 입도선매 개념이다. 와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 2023 빈티지 소개 화면.

/UGCB

이너리 입장에서 미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는 판단만 잘 내린다면 좋은 와인을 싸게 선점할 수 있다.

2023년 빈티지라면 시중에 나오기는 커녕 이제 막 배럴통 안에 담겨진 상태다. 와인 전문가들은 이런 숙성 전의 와인을 맛보고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뒤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평가한다. 이들의 의견이 모여져 앙프리에르에서 매매가의 기준이 된다.

2023년에 대한 평가는 무난하다. 작

년에는 다소 더운 한 해였지만 대부분의 와이너리가 수확시기를 당기면서 산도를 살렸고, 균형감을 갖췄다. 그런데 막 뛰어나다고 말할 부분도 없었다.

제임스 씨클링은 “최고의 와이메이커는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만들었지만 일부는 어려움을 겪은 듯했고, 과실미와 구조감 등에서 2022년보다 못했다”고 설명했다.

맛에 대한 평가가 애매하니 관건은 가격이 됐는데 와인시장을 둘러싼 환경

이 너무 좋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와인 판매는 줄었고, 수입업체와 유통업자, 와인 소매상까지 이미 쌓인 재고만으로도 벅차다. 높은 금리를 감안하면 좋은 와인을 선점하겠다고 몇 년씩 돈을 묶어두기도 힘들다.

일단 가격은 많이 낮아졌다.

롯데 높았던 샤토 라피트 로칠드도 2023년 빈티지를 병당 396유로로 2022년부터 30% 이상 할인해 내놨다. 샤토 무롱 로칠드 역시 전년 대비 36% 싸게 병당 330유로로 가격을 책정했다. 현재 팔리고 있는 2019년 빈티지의 반값에 불과하다.

빈티지에 대한 평가도 기대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앙프리에르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용론이 거론되면서다.

한 와인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앙프리에르는 판매보다는 가격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며 “수십년 전 현금 흐름에 절실했던 와이너리들은 이제 자금이 충분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부

르고뉴 와인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 바롤로 등 당장 살 수 있는 수백 가지의 고급 와인들이 있는데 보르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샤토 라투르는 지난 2012년부터 앙프리에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2000, 2003년 빈티지의 유명한 와인은 80%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10년을 놓고 보면 평균 수익률이 47.2%지만 최근 몇 년간은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다.

와인종합지수 리벡스(Liv-ex)에 따르면 2022, 2021, 2020, 2018, 2017년 빈티지의 상위 500개 보르도 와이너리의 현재 가격은 모두 앙프리에르 가격을 밑돈다. 2019년 빈티지만 수익을 냈다.

UGCB도 “앙프리에르는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출시된 이후 가격보다 10~30%는 저렴하다”면서도 “최상의 가격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지만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마음 낱말들에 붙인 주석

초면인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를 아는 지인들에게 “A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곤 한다. 일종의 평판조회랄까. 잊혀지지 않는 대답은 “무섭다”였다. 사람이 귀신도, 호랑이도 아닌데 왜 무서운지 궁금했다.

얼마 뒤 A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알게 됐다. A는 ‘뭘 같은’ 인간이었고, 차마 그런 저급한 표현을 쓸 수 없었던 친구는 애둘러 ‘무섭다’고 표현한 것이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의 정의’ 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말에 대해 마음에 품고 있는 ‘나름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마음사전’은 김소연 시인이 마음을 지칭하는 낱말들에 주석을 붙여 엮은 책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다. 시인은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나를 잘 오해해준다는 뜻이며, ‘너는 나를 오해하는구나’라는 말은 내가 보여주지 않고 자했던 내 속을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았느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일침을 가한다.

책에는 이런 촌철살인의 문장들이 가득하다. 죽비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마음사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랑’에 대한 시인의 냉소다. 그는 “거짓말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는 관계는 가족과 연인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굳게 맺어진 이



마음사전

김소연 지음/마음산책

관계는,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가장 많은 약속을 하면서 영위되고 있다”며 “약속은 범람하면 할수록 지켜질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마저 하게 된다”고 한탄한다.

시인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약속은 일종의 ‘노을’이고, 그 약속을 마치 다 지켜줄 사람으로 착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셈이다”며 “그 착시를 통해 관계는 강인하게 매수되고 단련된다”고 이야기한다.

‘마음사전’을 순식간에 독파한 뒤 ‘사랑’이란 단어 아래 나름의 주석을 달아 봤다. “너무 많은 기대를 갖게 해 한 사람을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뜨리고, 너무 많은 의미 부여로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무엇.”

320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k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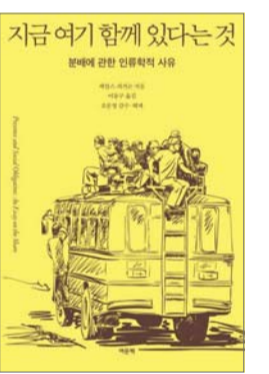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

부의 불평등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오랜 고질병 가운데 하나다. 부자와 빈자의 간극은 매워질 수 없을 만큼 벌어졌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사람들은 ‘잉여인간’이 될 처지에 놓였다. 그 누구도 내가 잉여인간이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책은 ‘사회’를 개인 간의 단순한 집합이나 연합이 아닌, 구성원들이 구속력 있는 의무로 묶인 특정한 종류의 집단

적자’로 정의한다. 사회라는 최소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의무’ 또한 이끌어낼 수 없다.

저자는 “우리는 감각의 확장, ‘성원권’의 범위와 정치적 연대의 폭 확대’를 통해 ‘내 코가 석 자’라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분(뒷)’을 나눠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132쪽. 1만4000원.

제임스 파거스 지음/이동구 옮김/여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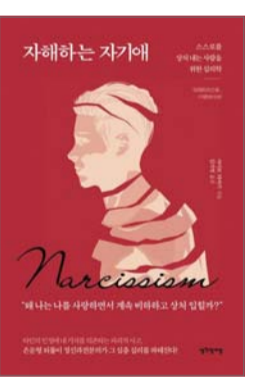
자해하는 자기에

“나는 쓸모없고 못났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야” 자기비하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던져 상처주는 이들의 습관화된 자기부정·비난의 배경에는 사실 자기에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상적 자기에’가 바로 그것. 이는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파괴적으로 작동해 자신을 상처 내는 자기에’로 정의된다.

저자는 “은둔형 외톨이 중에는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특히 많다”며 “자상적 자기에의 핵심 구조는 ‘강한 자존심과 약한 자신감’ 사이에 생기는 격차”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 헤매게 되는 미로, ‘자상적 자기에’를 깨닫고 이겨내는 법을 알려주는 심리 안내서.

288쪽. 1만8000원.

사이토 다마키 지음/김지영 옮김/생각정거장



몸과 마음 사이에서 철학하다

‘나’로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있다. 책은 ‘내 몸’과 ‘내 성격’으로 사는 게 어려운 이들을 위한 몸과 마음 탐구서다. “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스무살부터 13년 동안 난치병 치료를 받아온 그는 아픈 몸으로 지내며 ‘몸’과 그곳에 움튼 ‘마음’을 생생히 체험한 경험을 나눈다.

“나를 조종하는 건 몸일까, 마음일까?”, ‘내 몸인데도 왜 내 맘처럼 할 수 없을까?’, ‘지금 내 모습은 옳이 내가 만든 걸까?’, ‘사회는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몸과 맘을 꼭 나눠 생각해야 할까?’, ‘내 몸과 내 마음으로 잘 사는 법은 뭘까?’ 등의 질문을 통해 몸과 맘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로 톺아본다. 160쪽. 1만4800원.

가사라키 히로키 지음/윤예지 그림/김경원 옮김/위즈덤하우스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일본 수도권서 진도 5.4 지진...쓰나미 우려는 없어
▲美 민주당 하원, 또 바이든 사퇴 요구...미니 경선 논의도 /사진 뉴시스

▲하마스, 한 달 만에 이스라엘에 새 휴전안 제시
▲시진핑-푸틴, 회담서 친밀감 과시...“두 나라 관계 역대 최고”



▲계속된 폭우에 중국 양쯔강 범람 지속...“100년에 한번 있을 홍수”
▲자메이카, 허리케인 ‘베릴’ 강타에 사망·실종 10여명 /사진 뉴시스



(왼쪽부터) 감성정원 '거울못', 단지 내 휴식공간, '사색의 정원' 모습.

“사철푸른 웅장한 소나무... ‘사색의 정원’ 녹음 즐기며 休~”

아파트의 미학(美學)

평촌 엘프라우드

최근 방문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 엘프라우드'. 아파트 정문에는 황금색의 'ELPROUD'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단지의 입구에는 소나무가 식재돼 웅장한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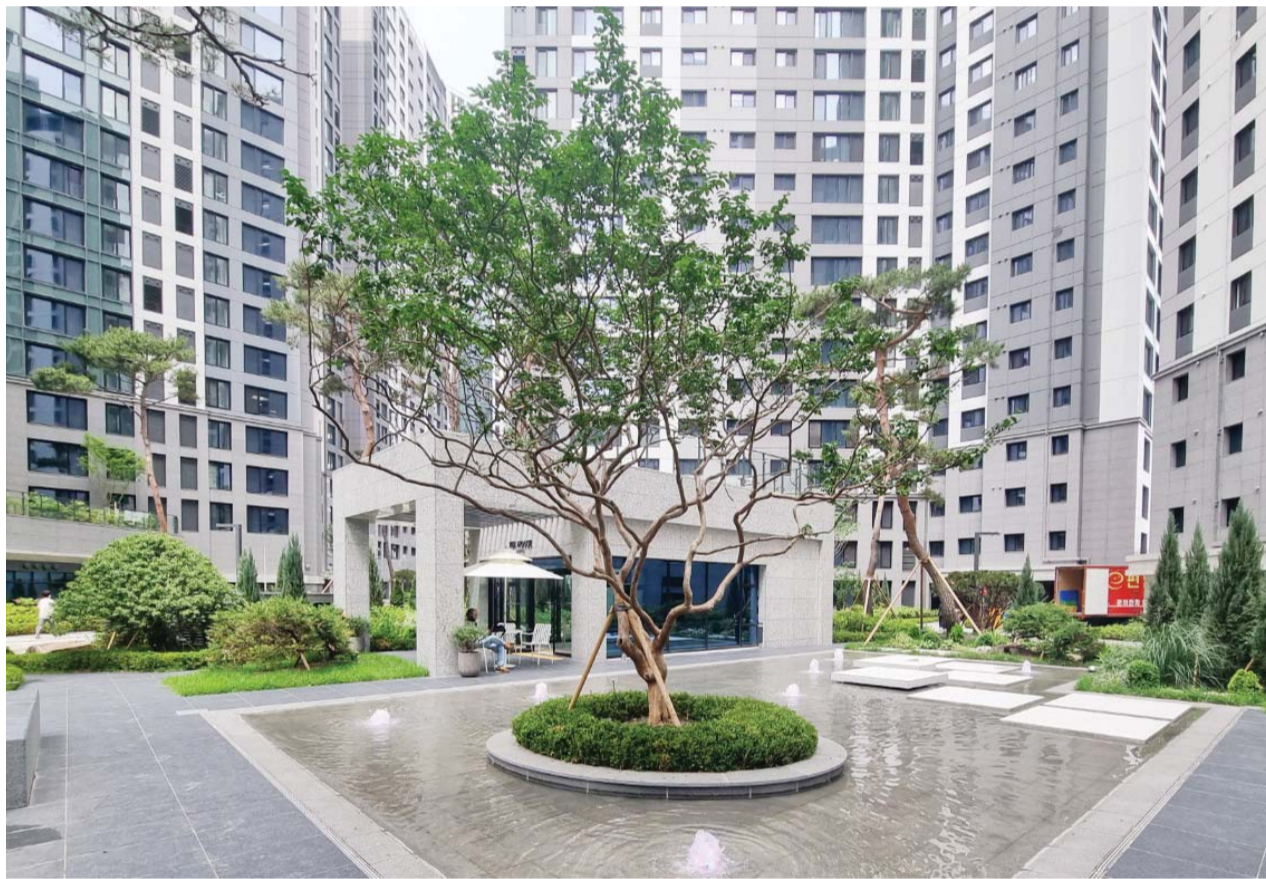
'평촌 엘프라우드'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단지를 향해 가는 동안 주변에는 달안·부흥·희성초,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에는 학의천, 안양종합운동장, 운곡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들어선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33개동, 총 2739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49㎡ ▲59㎡ ▲74㎡ ▲84㎡ ▲110㎡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판상형과 타워형 평면을 조화롭게 구성했고, 일부 타입에는 팬트리,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됐다.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4089대(가구당 1.49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곳곳에는 '평촌 엘프라우드'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1단지 중앙에는



정원 '송영루'.

입구에 소나무 식재 '웅장한 느낌' 인근에 달안·부흥초 등 자리잡아 학의천·운곡공원 등 주변에 위치

지하 4~최고 29층, 총 2739가구 4089대 주차공간 넉넉하게 확보

1단지 중앙에는 감성정원 '거울못' 대표정원 '송영루'엔 티카페 설치 소요의 정원·사색의 정원 등 조성

브라치트리차세플, 청단풍 등 다양한 식물로 조성된 산책로는 숲속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단지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골프클럽, 필라테스, 사우나, 스튜디오, 공유오피스, 게스트하우스, 코인세탁실, 시니어클럽, 요리교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어린이집도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와 공간 연출로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만화 캐릭터 테마의 놀이터 '머피의 책방'을 비롯해 새끼오리를 연상시키는 '숲속 연못 소풍'과 동화를 모티브로 만든 '푸른마법 요정의 마법에 걸린 피노키오', 오두막 풍경을 표현한 '무력무력 포레스트 가든하우스'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은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왼쪽부터) 단지 내 휴식공간, 테마놀이터 '푸른마법 요정의 마법에 걸린 피노키오', '소요의 정원'의 모습.



한미약품
경영권분쟁 새 국면
키맨, 모녀 손 잡았다
L1



Life

김승연 회장
한화이글스에
스마트TV 봤다
L2



술에 섞으니 상큼함이 '팡팡'... 독주 대신 맛있게 한잔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하이트진로음료 '진로토닉워터'

국내 양주시장에 맞춰 믹스음료 개발
1976년, 칵테일용 음료 토닉워터 출시
상쾌한 시트러스에 탄산의 청량감까지
MZ세대 '믹솔로지' 열풍 필수템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칵테일 만들 수 있어
진저에일 등 다양한 플레이버 제품 선보여
국내 첫 무칼로리 '토닉워터 제로' 출시



하이트진로음료 '소토닉' 디지털 광고 스틸컷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음료 '소토닉' 디지털 광고 스틸컷

/하이트진로

하이볼, 진로토닉 등 '칵테일'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바로 국내 토닉워터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8년 전통의 하이트진로음료 '진로토닉워터'다.

1976년 처음 출시된 이후 서양 주류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칵테일 믹서로 애용되던 진로토닉워터는 한국형 칵테일 '소토닉(소주+토닉워터)' 트렌드 확산에 따라 최근 MZ세대의 믹솔로지(Mix+Technology) 필수템으로 여겨지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익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70년대 '진로토닉' 최적화 제품으로 출시

진로는 1975년 음료 생산업체인 경인합동음료(현)를 인수하며 음료 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국내 양주 시장 형성에 맞춰 칵테일 믹스 음료 개발을 적극 추진했으며, 1976년 10월 양주 칵테일용 음료인 진로믹서 토닉워터, 진저에일(진저에일), 카린스믹서, 프레인소다 등 4종을 출시했다.

특히 진로믹서 토닉워터는 레몬, 라임 등 시트러스 계통 특유의 상쾌하고 짭짤한 맛에 적당한 탄산으로 청량감을 더해 진(Gin)과 최적의 궁합을 이루도록 제조됐다. 당시 칵테일의 대명사로 통하던 '진로토닉'은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좋아하는 칵테일 1위로 선정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 블루컬러의 패키지도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브랜드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탄생한 진로믹서 시리즈는 알코올 음료와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맛으로 40여 년간 주류 업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국내 대표 믹서 브랜드의 자리를 지켜왔다.

◆가벼운 음주문화 '소토닉'으로 제2의 전성기

진로토닉워터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 침체로 인한 국내 위스키 시장의 위기는 단연 칵테일 믹서에도 영향을 끼쳤다.

2000년 초 경기호황으로 폭탄주가 대중적인 음주문화로 자리 잡으며 그 성장세가 최고조에 달했던 위스키와 칵테일 문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술자리 자체가 크게 줄어들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음주문화 자체도 변했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회식 문화 대신 혼술, 홈술, 과실주 문화가 유행하며 독한 술 대신 일상에서 부담 없이 즐기는 가벼운 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러한 주류 트렌드 변화를 읽고 수입 주류 믹서로만 인식되던 토닉워터를 국내 대표 주종인 소주와 조합한 '소토닉' 문화를 앞세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8년 7월 젊고 감각적인 패키지와 맛으로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한 것에 이어,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소토닉 시음행사를 진행하며 한국형 토닉문화 알리기에 힘썼다.

'소토닉' 전략은 이듬해 실적으로도 나타났다. 진로토닉워터의 2019년 1~3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었으며, 2019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했다.

◆다양한 플레이버로 MZ세대 믹솔로지 문화 주도

진로토닉워터는 최근 믹솔로지, 홈텐딩, 하이볼 트렌드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손쉽게 특색 있는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주류와 믹서에 대한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 2017년 '진로토닉워터 칼라만시', '진로토닉워터 애플' 출시를 시작으로 2022년 '진로토닉워터 진저에일', 샤이니 키와 협업한 '진로토닉워터 흥차 키-이즈백 에디션', 2023년 '진로토닉워터 와일드피치' 등 토닉워터 고유의 향에



'진로토닉워터 흥차 키-이즈백 에디션'

다양한 플레이버를 첨가한 시리즈 제품을 선보였다.

2019년에는 '제로 칼로리' 트렌드가 F&B 시장을 강타한 것을 겨냥해 국내 최초 무칼로리 토닉인 '진로토닉워터 제로'를 출시했으며, 이후 출시되는 시리즈 제품에도 제로 칼로리를 반영했다.

트렌드 흐름에 맞춘 전략으로 진로토닉워터의 2023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성장했으며, 7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꾸준한 성과를 냈다. 연간 판매량 또한 2017년 1300만 병 수준에서 2023년 기준 1억900만 병으로 77배 이상 급증했다.

과거 생수 사업에 주력하던 하이트진로음료의 사업 포트폴리오 또한 진로토닉워터의 판매 성과로 2017년 전체 매출액의 16%에 불과했던 음료(비생수) 사업 매출액이 2023년 1분기 54%까지 늘어나며 한층 다변화됐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반세기를 고객과 함께 한 진로토닉워터가 한 세기를 같이하는 그날까지 국내 토닉워터 1위 브랜드의 자리를 지키며 한국형 토닉워터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베이스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프로야구 LG, 키움에 2연패...1위 KIA와 승점 차이는 3.5경기로
▲김하성, 안타 1개·도루 2개 추가...텍사스 상대 6대4 승리 /사진 뉴시스

▲클린스만, 잉 대표팀 향해 "팬들 말보다 자신 직감 믿는 게 중요"
▲황인범, 세르비아 리그 '올해의 선수' 선정



▲K리그 광주, 이정호 감독 배제하고 임지석 이적 협상해
▲여자배구 GS칼텍스, 이번 시즌 주장으로 유서연 임명 /사진 뉴시스